

초미세 돌덩이

전아현

목차
List

7	서문 - Preface
11	시지프 신화와 아모르 파티 - The Myth of Sisyphus and Amor Fati
21	1g부터 1,000,000,000g까지, 돌을 가볍게 옮기기 - Moving stones lightly, from 1g to 1,000,000,000g

서문

본 책은 전아현의 작업 〈가볍게 밀기〉에서 시작되었다. 전시장에 놓인 큐알코드는 관람객을 웹사이트로 연결했고, 관람객은 1g부터 1,000,000,000g까지의 무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선택된 무게는 이미지로 생성되어 영수증 프린터를 통해 즉시 출력되었다. 출력된 이미지는 각기 다른 무게의 돌을 옮기고 있는 작업자의 모습으로 남았고, 전시는 관람이 아닌 선택과 생성의 과정으로 작동했다. 전시 기간 동안 생성된 100장의 이미지는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다. 이 책은 그 결과를 기록하는 데서 나아가, 무게라는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낸 차이를 다시 질문한다. 전시에서 즉각적으로 출력되었던 이미지들은 이 책 안에서 정리되어, 느리게 읽히는 대상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이 책은 이미지의 아카이브이자 안내서이다. 전시에서 생성된 이미지들과 함께, 돌을 가볍게 옮겨낼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이 나란히 배치된다. 이 방법들은 해결책이라기보다, 무게를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에 가깝다. 이 책은 작품의 연장이지만 복제는 아니다. 〈가볍게 밀기〉가 즉각성의 구조였다면, 이 책은 반복과 지속의 구조를 따른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작품은 질문으로 남고, 이 책은 그 질문을 이어받는다.

Preface

This book originates from Jeon Ahyun's project Gently Pushing. In the exhibition space, a QR code connected visitors to a website where they could select a weight ranging from 1 gram to 1,000,000,000 grams. The chosen weight was immediately translated into an image and printed in real time through a receipt printer. The printed images did not depict specific faces or personal narratives; instead, they showed workers carrying stones of varying weights. In this way, the exhibition functioned not as a time of passive viewing, but as a process of choice and generation.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one hundred images were produced through repeated selections. Different choices led to different images, all derived from a single variable: weight. This book does not simply record those results, but asks what direction they point toward. Images that were instantly printed in the exhibition are reorganized here and transformed into objects to be read slowly.

At the same time, this book functions both as an archive and as another kind of guide. Alongside the images, it presents one hundred ways to move a stone more lightly. These are not practical solutions, but different attitudes toward weight—some physical, some metaphorical, and others approaching almost no action at all. This book extends the work, but it is not a reproduction of it. While Gently Pushing was structured around immediacy and instant output, this book follows repetition and duration. On paper rather than on screen, and through accumulation rather than the moment, the work remains as a question—one that this book continues to carry forward.

누구나 크고 작은 돌을 굴리며 살아간다. 거창한 의미가 없더라도, 반복되는 하루를 이어가며 그 무게를 견디는 일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성실함이다. 나의 작업은 신화 속 시지프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작은 돌맹이들에서 출발한다. 어떤 이는 그 돌을 책임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생존이라 부르며, 또 다른 이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채 그저 밀어낸다. 중요한 것은 돌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굴려 올리는 행위, 즉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다.

니체의 말처럼,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과업과 감정을 건네지만, 인간은 그것을 다시 선택하고 긍정하려는 힘을 갖고 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는 돌을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돌을 굴리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유가 흐릿한 삶일지라도, 그 삶을 다시 한번 승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을 향해 새로운 힘을 내고 있다. 이 작업은 바로 그 힘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기록하려는 시도이다. 각자가 들고 있는 돌의 무게, 질감, 형태를 묻고 그 답을 이미지로 환원함으로써, ‘살아낸 사람들’의 성실함이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 관찰하려 한다. 돌의 무게가 곧 존재의 무게라면, 그 존재를 지속시키는 반복 역시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Everyone lives by rolling large and small stones. Even if there is no grand meaning, it is already one sincerity to bear the weight by continuing the repetitive day. My work starts with the small stones held by ordinary people living today, not the mythical siziff. Some call the stone responsibility, some call it survival, and others just push it away without even naming it. What matters is not the size of the stone, but the act of rolling it again, that is, a movement that does not stop living.

As Nietzsche said, life gives us constantly repetitive tasks and emotions, but humans have the power to choose and affirm them again. The amorphous party, the attitude of loving fate that Nietzsche said, is not a way to throw away the stone, but a way to admit myself to rolling the stone. Even if the meaning is unclear and the reason is blurred, the moment we approve that life once again, we are already giving new power to the stone. This work is an attempt to visually record the form of power. By asking the weight, texture, and shape of the stone each person is holding and reducing the answer to an image, we try to observe how the sincerity of the 'living people' remains. If the weight of a stone is the weight of existence, I believe that repetition that sustains its existence is also something to love.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는 끝없이 반복되는 노동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받은 형벌은 단 한 가지다.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일. 정상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위는 언제나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시지프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처음부터 그 일을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반복은 멈추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회자되는 이유는, 단지 신에게 벌을 받은 한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삶 어딘가에 닮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어떤 일들을 해내고, 다시 같은 일들을 시작한다. 어제 해결한 문제가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늘 끝냈다고 생각한 일이 내일 다시 우리를 부른다. 어쩌면 누구나 자신만의 바위를 굴리고 있는 셈이다.

The Myth of Sisyphus and Amor Fati

In Greek mythology, Sisyphus is known as the symbol of endless, repetitive labor. His punishment was singular: pushing a massive boulder up a mountain peak. The moment he thought he was nearly at the summit, the boulder would always roll back down, and Sisyphus would descend the mountain again to repeat the task from the beginning. And this repetition never ceases. It continues forever.

This story endures not merely because it depicts the fate of a man punished by the gods. It resonates because it mirrors something within each of our own lives. Every day, we accomplish certain tasks, only to begin the same ones anew. Problems we solved yesterday reappear today in different forms, and tasks we thought finished today call to us again tomorrow. Perhaps we are all rolling our own boulders.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긴다. 과연 시지프는 절망 속에 있었을까?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 신화를 새롭게 읽어냈다. 그는 시지프가 바위를 굴리는 행위 그 자체 안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상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난 뒤, 산을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시지프가 자신의 상황을 가장 명확히 이해하는 순간, 그때 그는 스스로 다시 바위를 굴리기로 선택한다. 그 선택 자체가 인간의 의지라고 카뮈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인간으로 상상해야 한다.”

행복이란 거대한 환희나 극적인 성공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계 안에서도 다시 한 번 행동을 선택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시지프의 반복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 존재의 비유가 된다. 지워지지 않는 문제와 다시 시작되는 하루 속에서도 계속 걸어 올라가는 인간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는 시지프 신화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

Here an intriguing question arises. Was Sisyphus truly in despair? French philosopher Albert Camus offered a fresh interpretation of this myth. He believed Sisyphus could find another meaning within the very act of rolling the boulder. After the boulder falls from the summit, in that brief moment descending the mountain—the moment Sisyphus most clearly understands his situation—he chooses to roll the boulder back up again. Camus said that choice itself is the human will. Thus, he concludes: “We must imagine Sisyphus happy.”

Happiness, he suggests, does not stem from grand ecstasy or dramatic triumph, but from the power to choose action once more within an absurd world. Sisyphus’s repetition becomes not mere punishment, but a metaphor for human existence that creates meaning for itself. It is the image of a human being who keeps walking upward, even amidst an indelible problem and a day that begins anew. Within this, we feel the myth of Sisyphus more intimately.

“너의 삶이 이대로 끝없이 되풀이된다고 해도 너는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If your life were to return again and again, exactly as it is now, could you bear it?”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굴러가는 날보다, 그냥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날이 더 많다.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별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가라앉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루가 틀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마음가짐을 바꿔라” 같은 말을 쉽게 던지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안다.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Amor fati)는 그런 단순 긍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말 그대로 옮기면 “운명을 사랑하라”인데, 여기서 운명은 어떤 미리 정해진 미래나 거창한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까지 포함한 삶 전체를 뜻한다. 즉, 기쁜 일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웠던 순간, 실패, 후회, 억울했던 일까지도 “이것도 결국 내 삶의 일부였다”라고 인정하려는 태도다.

Life often brings more days filled with unwanted events than days that go exactly as planned. Things don't go as smoothly as expected, moods sink for no apparent reason, and days frequently get derailed by circumstances beyond our control. Whenever this happens, people easily throw around advice like "think positively" or "change your mindset," but everyone knows it's not as simple as it sounds. Forcing a smile doesn't suddenly make life better either.

Nietzsche's Amor fati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at kind of simple positivity. Literally translated as "love your fate," this fate doesn't refer to some predetermined future or grand plan. It means the entirety of life, encompassing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to me so far and any situation that might happen to me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it's not about selectively loving only the happy moments, but embracing even the embarrassing moments, failures, regrets, and injustices with the attitude that "this too was ultimately part of my life."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삶을 미화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요소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체를 하나의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아모르 파티는 나쁜 일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일들을 계속 거부해봤자 내 삶이 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 경험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실패를 어떻게 다시 재료로 삼을지,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갈지. 결국 아모르 파티는 “완벽하지 않았던 나의 삶 전체를 다시 선택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태도다. 삶을 감당하는 힘은 거창한 의미에서 오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 다시 하루를 쌓아 올릴 때 조금씩 생겨난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는 바로 그 힘에 대한 이야기다.

Nietzsche poses this question: “If you had to live this life you’ve lived so far all over again, exactly as it was, would you choose to do so?”

This question does not mean to romanticize life. We cannot undo what has already passed, nor can we deny that those events are the very elements that shaped who we are today. The question is whether we can accept the entirety of it as one ‘my life’.

Amor fati does not mean forcing yourself to like bad things. It doesn’t make wounds disappear or failures beautiful. It simply means accepting that continuing to hate and reject those things won’t make your life any lighter. From that moment, you can choose. How to use that experience, how to turn that failure into material again, and how to live this life anew. Ultimately, amor fati is the attitude of saying, “I will choose to live my entire imperfect life again.” The strength to bear life doesn’t come from grand meanings. It emerges little by little when we acknowledge what has already passed and build another day upon it. Nietzsche’s amor fati is precisely about that strength.

18 돌을 가볍게 옮기기

Moving a 1g stone lightly



덜?

덜?

동?

1. 돌을 돌이라 부르지 않기

돌?

독?



독?

들?



2. 무게를 반으로 쪼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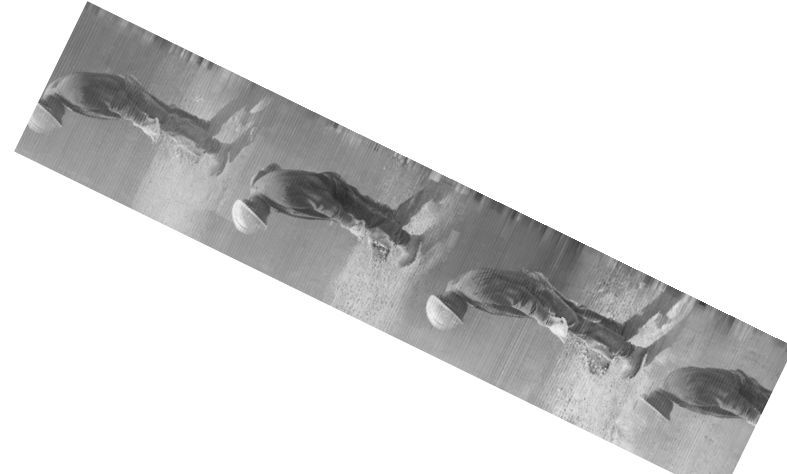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해서 하면 훨씬 쉽다는 뜻의 우리 속담이다. 비슷한 서양 속담도 있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즉 ‘한 사람의 머리 보다 두 사람의 머리를 합하면 낫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속담이 물리적인 힘을 나누어 맡는 것에 비중이 있다면, 서양 속담은 지혜를 모으는 것을 강조한 점이 조금 다르다고나 할까? 또한, 성경의 전도서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하므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속담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진리인 것 같다.¹

1 박용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KRISS 소식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글.

3. 친구에게 1초만 같이 밀어달라 하기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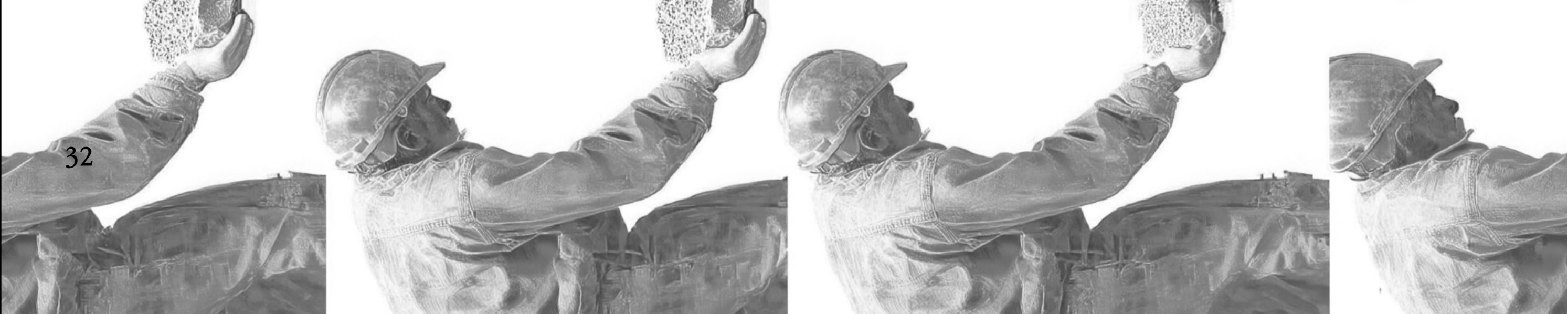
4. 돌에 바퀴를 달기





5. 돌 위에 앉아 잠깐 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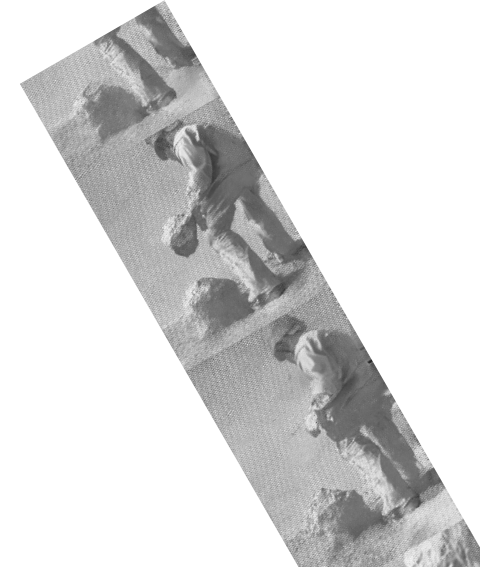


주요 스트레스 상황별 대처법

아기가 좌절감을 느낄 때 - 아기의 좌절감을 함께 느끼면서 위로해 준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기는 자신이 하고 싶어도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령 걷고는 싶은데 자꾸 바닥에 넘어지거나 가구에 부딪치게 될 때 아기는 좌절해서 화를 내거나 운다. 이때는 부모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 주면 아기는 자신의 좌절감을 엄마가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¹

1 「주요 스트레스 상황별 대처법 — 아기가 좌절감을 느낄 때」, 한솔교육 에듀한솔 사회성·성교육 자료, <https://www.eduhansol.com>
(2025.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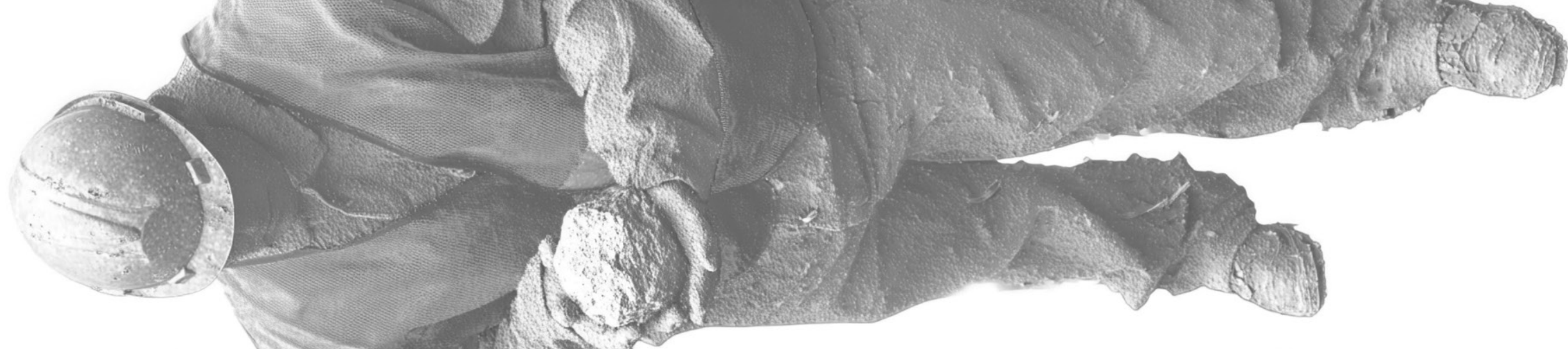
6. 돌을 품에 안고 걸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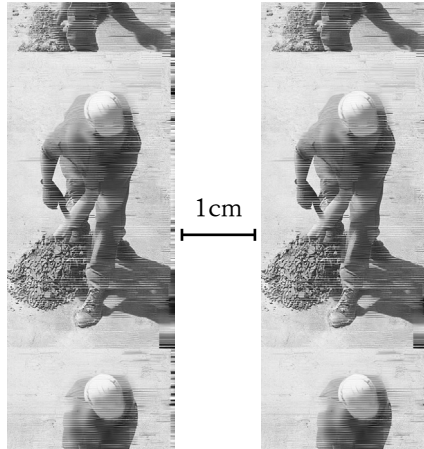


7. 돌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기





8. 오늘은 1cm만 밀기로 목표를 낮추기





9. 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상상해보기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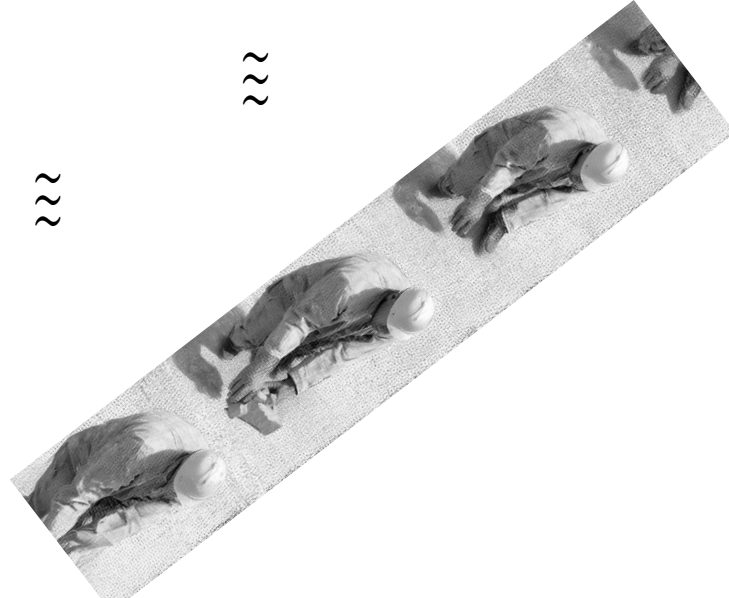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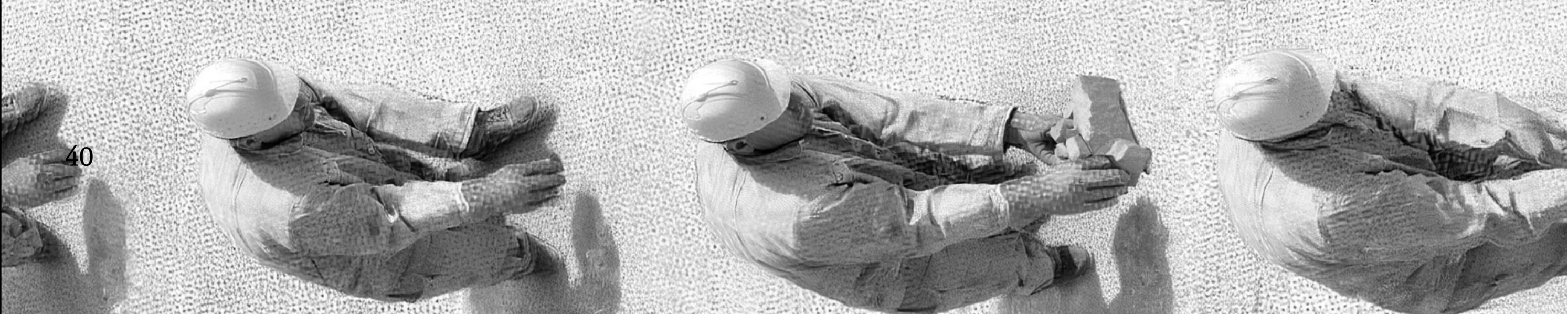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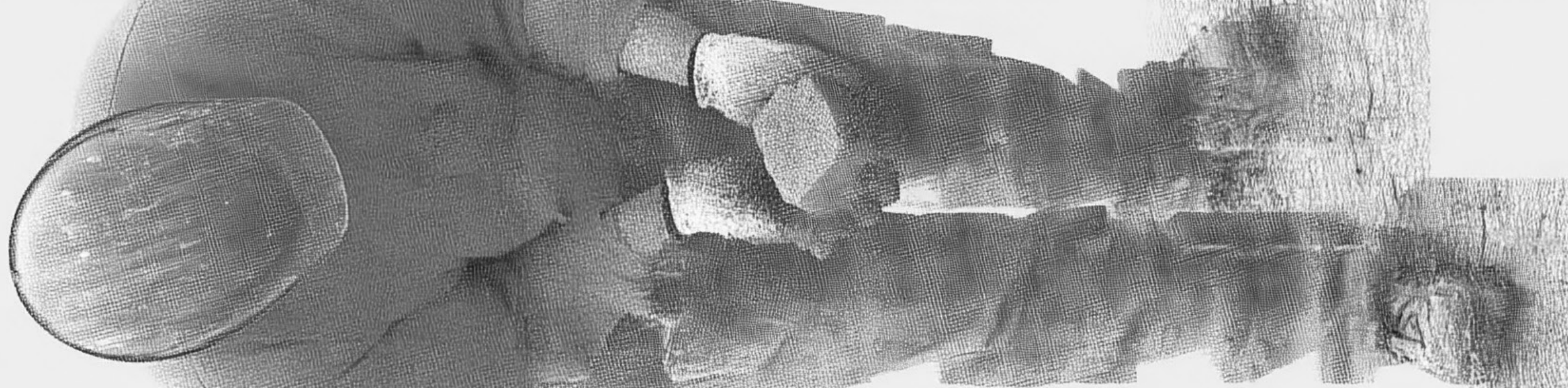
~~~

~~~





10. 돌이 아니라 구름이라고 상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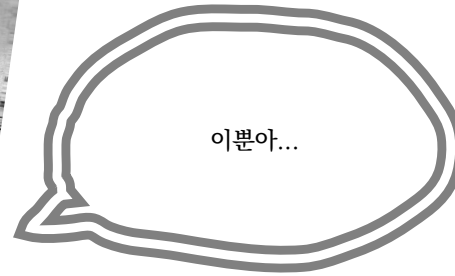
10g 돌을 가볍게 옮기기

44

Moving a 10g stone lightly



11. 돌에 이름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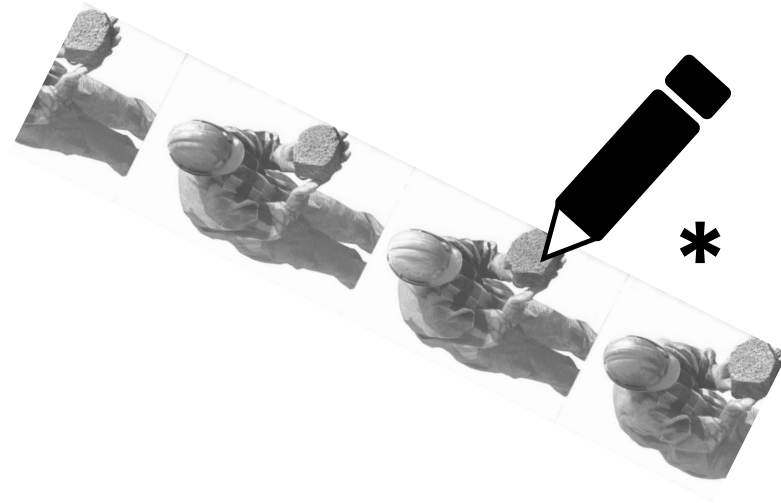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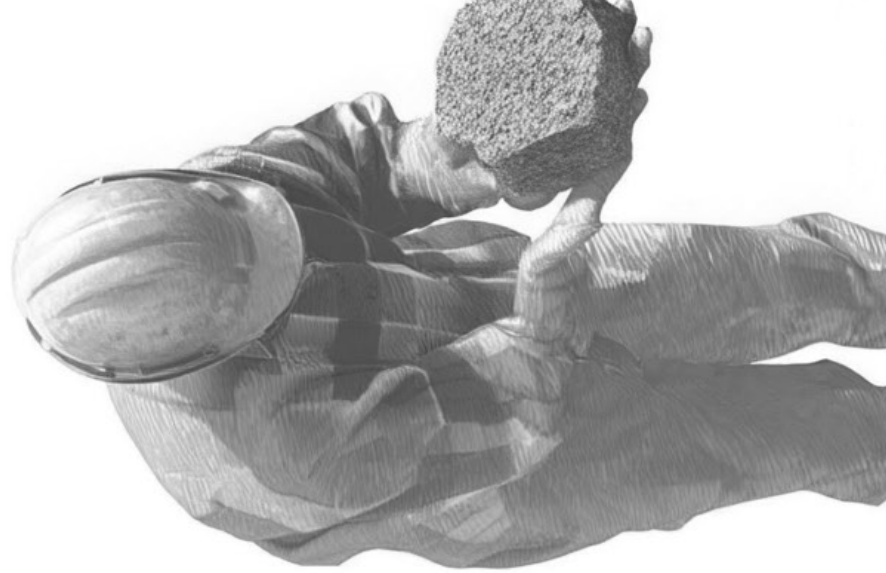
12. 돌을 투명한 상자로 감싸기





13. 돌을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기





석재의 비중은 석종 (화강암, 대리석, 사암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2.7g/cm^3 이다. 기준이 되는 물의 비중은 1이다.

석재의 무게 계산은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만약 석재의 크기(부피)가 $200\text{mm} \times 250\text{mm} \times 1000\text{mm}$ 이라면 $0.2 \times 0.25 \times 1 \times 2700 = 135\text{kg}$ 이다. 비중을 2700으로 곱한 것은 단위를 m으로 통일하는 의미이다.¹

따라서 10g짜리 사암의 무게를 구하는 공식은 ' $10 \div 2.7 = 3.7\text{cm}^3$ '와 같다.

1 · 돌 무게 계산 방법 참고,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one8089/220165285121>

14. 무게를 숫자로 적어보기





석재의 비중은 석종(화강암, 대리석, 사암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2.7\text{g}/\text{cm}^3$ 이다. 기준이 되는 물의 비중은 1이다. 석재의 무게 계산은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는 석재의 부피에 비중을 곱해 무게를 산출한다. 그러나 반대로 무게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물에 잠겼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를 통해 석재의 무게를 추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석재를 물에 넣기 전과 후의 부피 차이를 측정하여 석재의 부피를 구하고, 여기에 석재의 비중을 곱한다.

따라서 물에 잠겼을 때 물의 부피가 약 3.7cm^3 증가했다면, 해당 석재의 무게는 ' $3.7 \times 2.7 = 10\text{g}$ '으로 계산할 수 있다.

15. 무게를 반대로 측정해보기





16. 돌에게 사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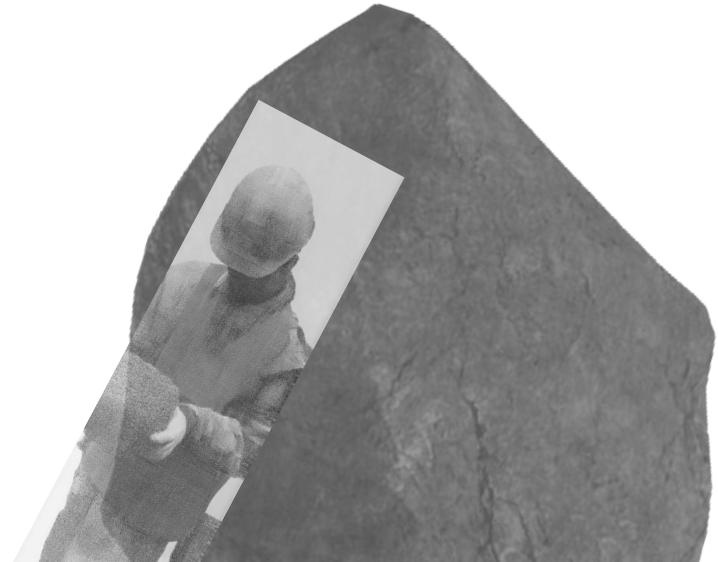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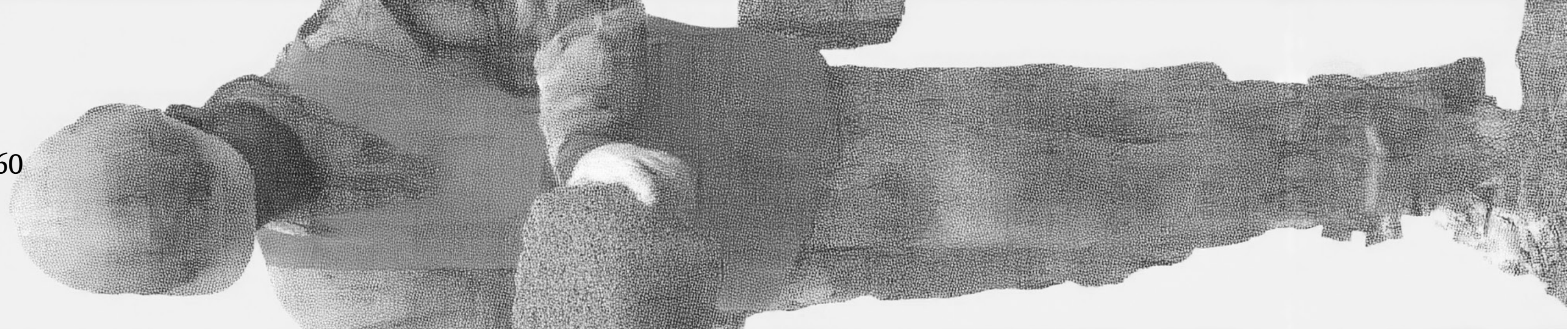
17. 돌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18. 돌을 기록물로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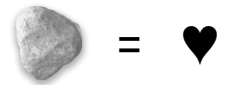


2025. 12. 14. 3:03 PM

상징놀이는 표상 및 언어의 시작과 함께 생후 둘째 해에 나타나 유아기에 걸쳐 중요한 발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적 성취로서(Piaget, 1962; Vygotsky, 1967; Fein, 1981) 놀이 연구가 및 교육 실행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와는 달리 “마치 ~한 것처럼” 행동하는 가장적인(simulative) 또는 비사실적인(nonliteral) 행동으로 설명되는 상징놀이는(Fein, 1981),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의 숙달, 즉 표상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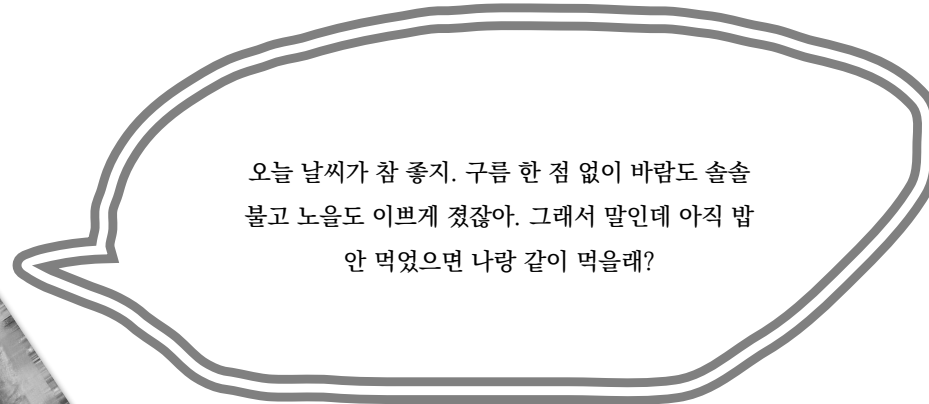
1 「아동의 상징놀이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지구조적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DBpia 학술논문,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3399> (2025.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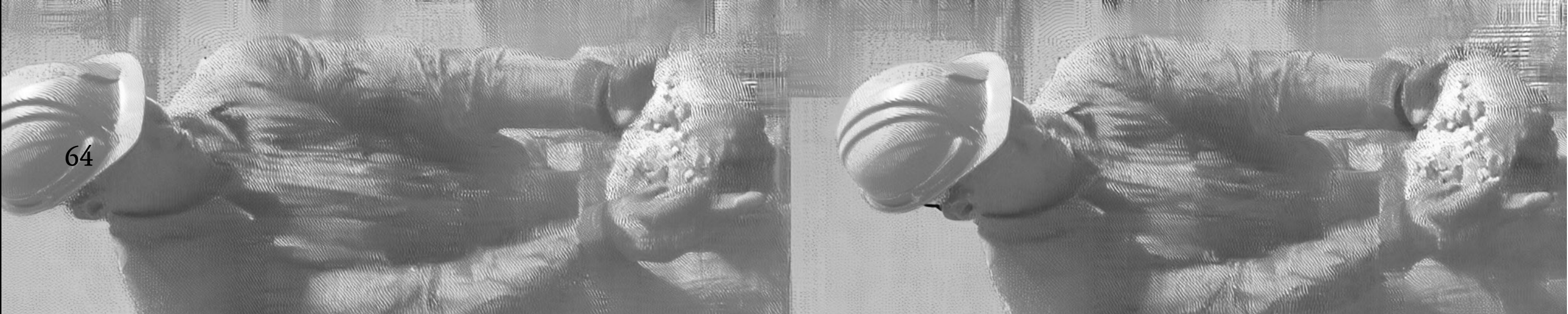
19. 돌을 나만의 상징으로 만들기





20. 돌과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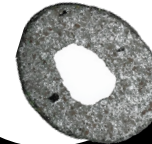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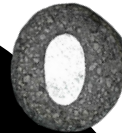




100g ¹⁰⁰만큼 가볍게 옮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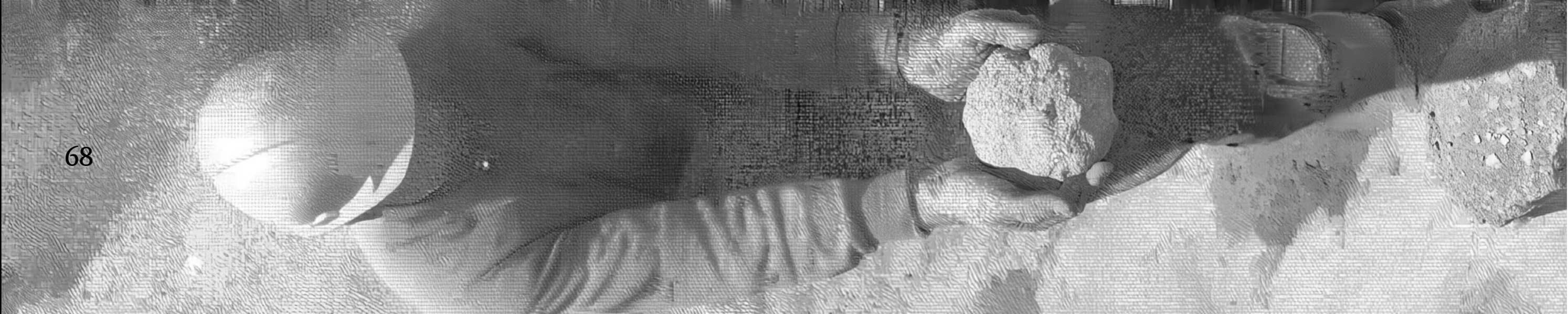
66

Moving a 100g stone ligh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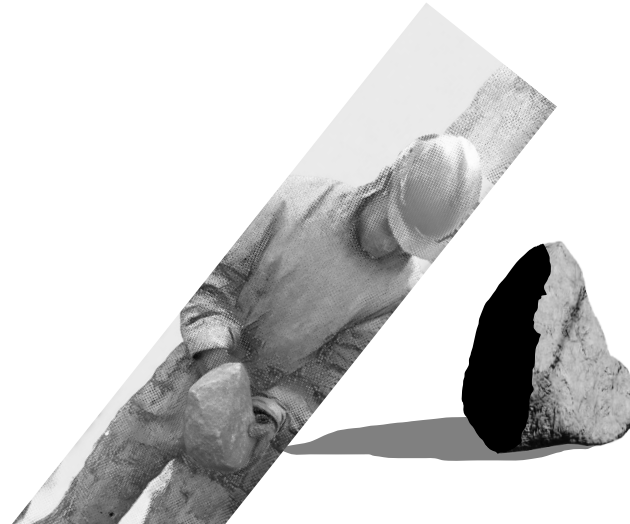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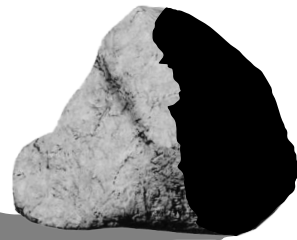


21. 돌의 온도를 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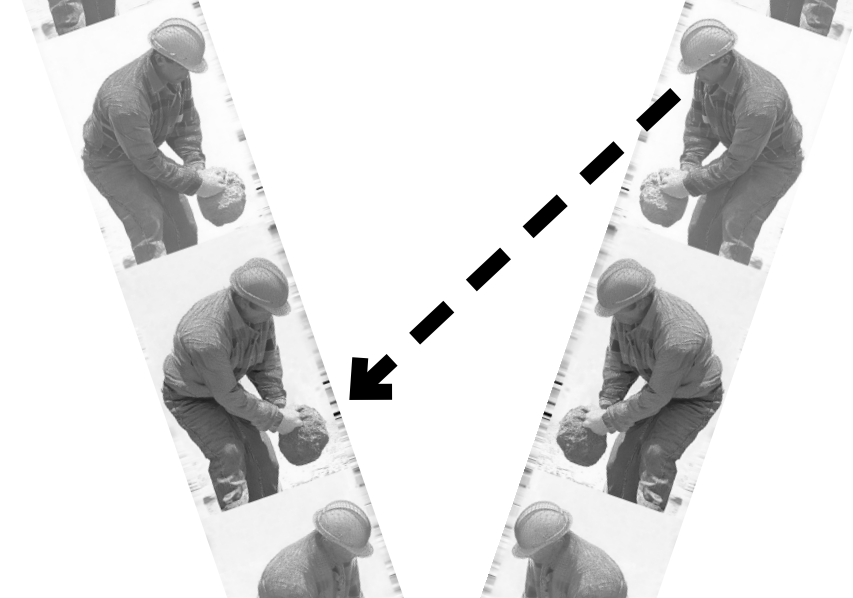


22. 돌의 절단면을 관찰하기





23. 다른 사람의 돌을 구경하기





24. 돌 굴리는 방법을 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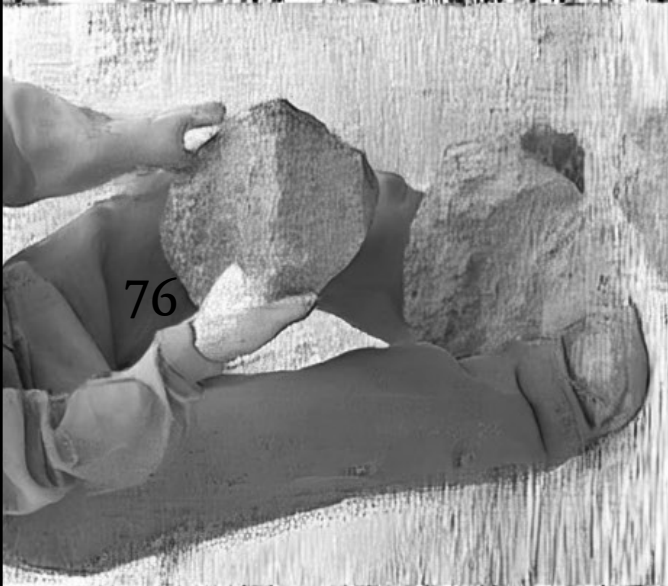






25. 돌을 하루 동안 방치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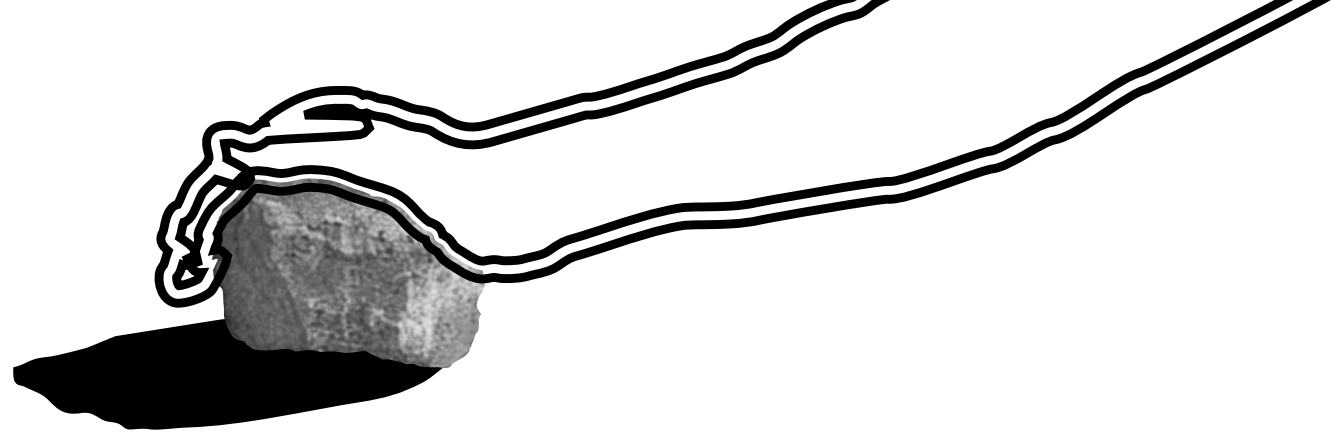




76



26. 돌을 하루 동안 쓰다듬기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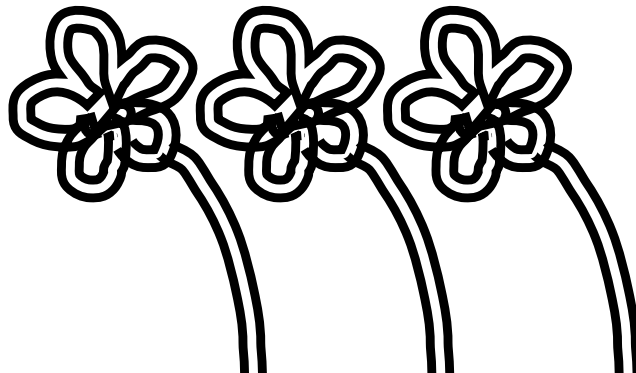


27. 돌의 색을 바꾸기





28. 돌 옆에 꽃을 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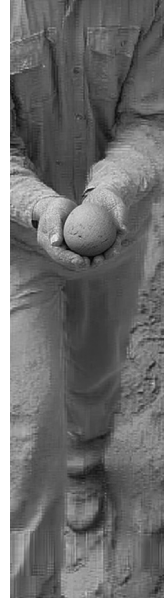


29. 돌 사진을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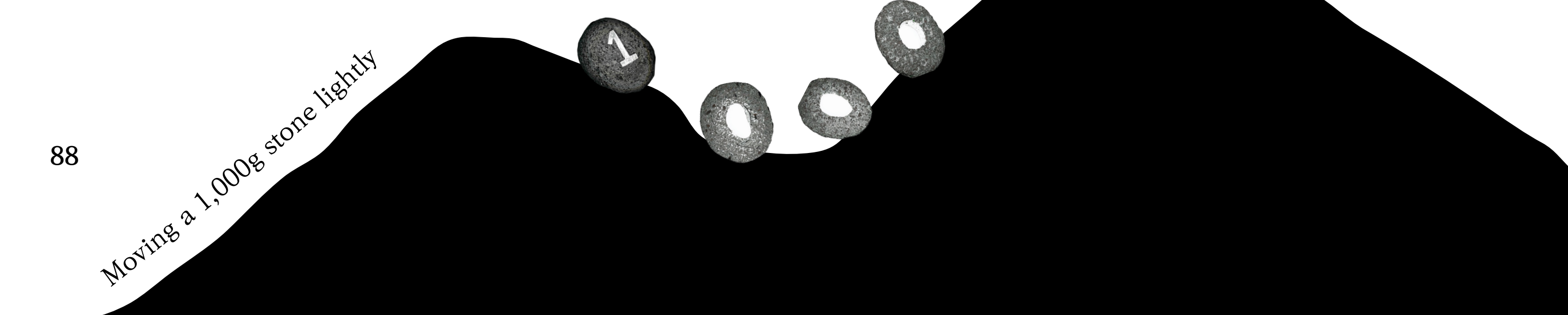


30. 돌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미리 스캔하기





1,000g 돌을 가볍게 옮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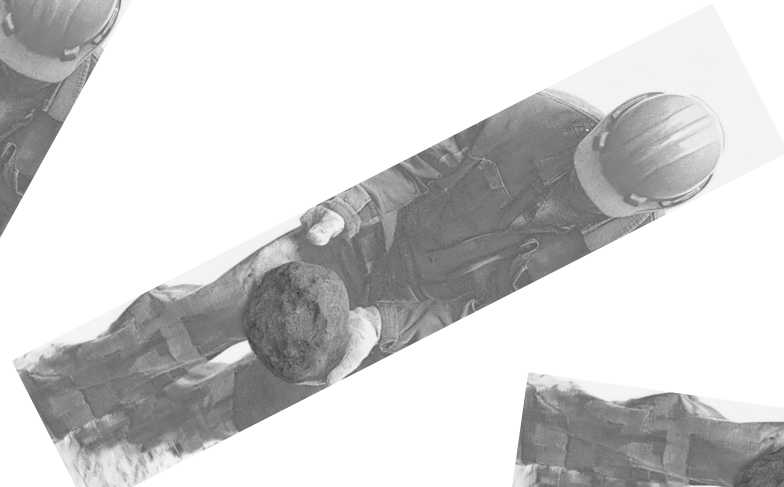


31. ^숨~~물~~을 무언가에 비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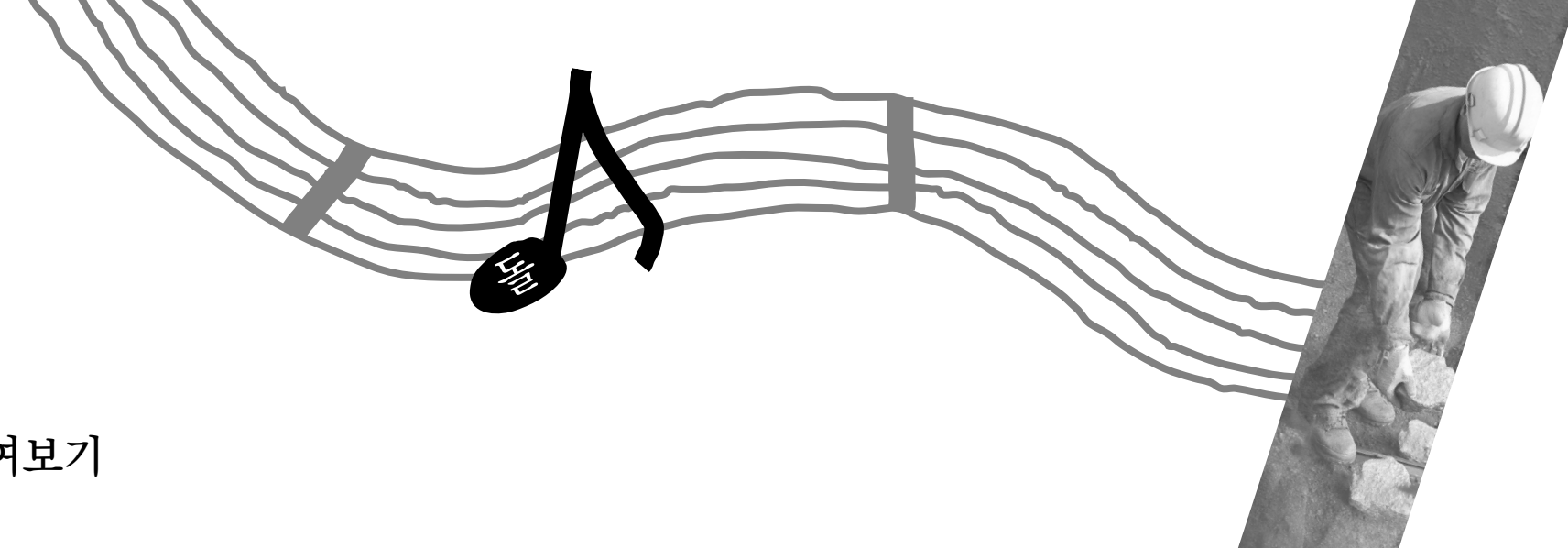


32. 돌이 나를 굴린다고 상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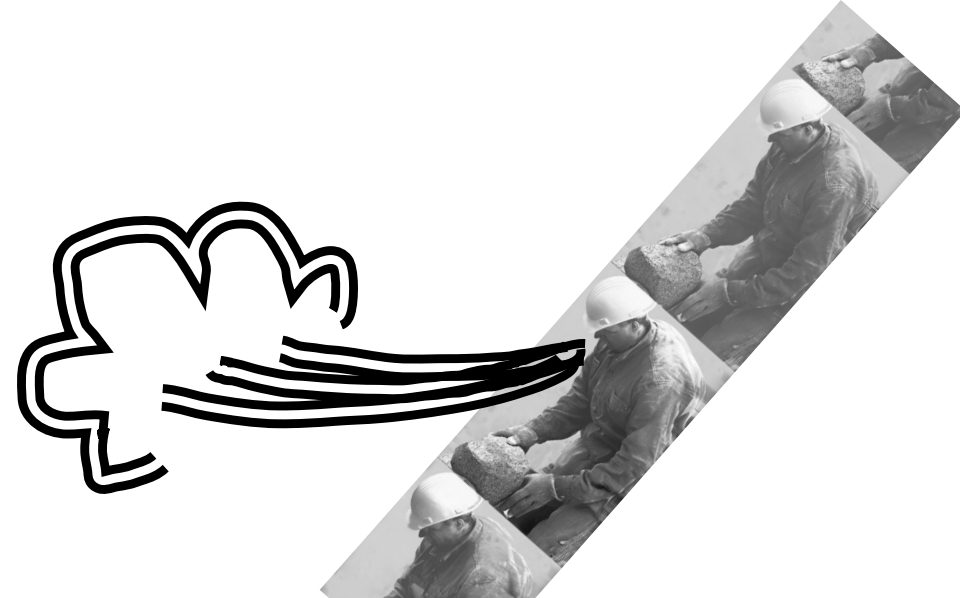


33. 돌에게 리듬을 붙여보기





34. 돌을 밀 때 숨을 내쉬기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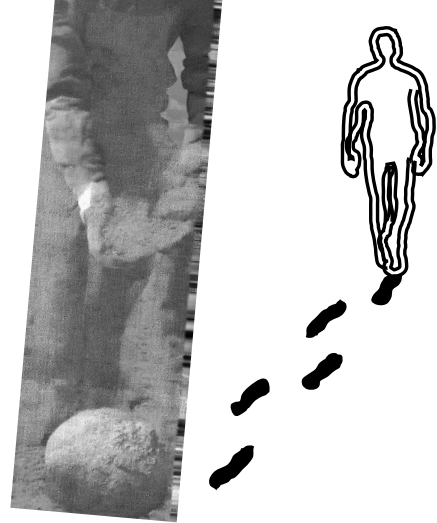
35. 돌의 무게를 타인에게 묻기



이거 대체 몇 키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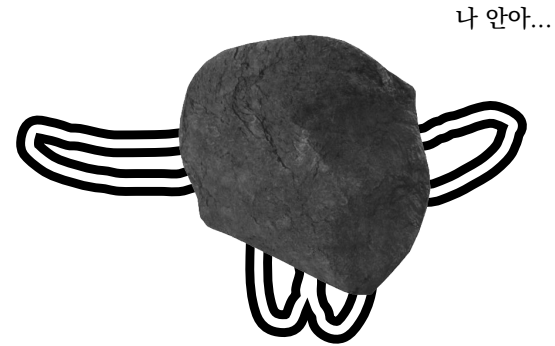


36. 돌의 반대편으로 걸어보기





37. 돌을 껴안고 천천히 움직이기





38. 밀기보다 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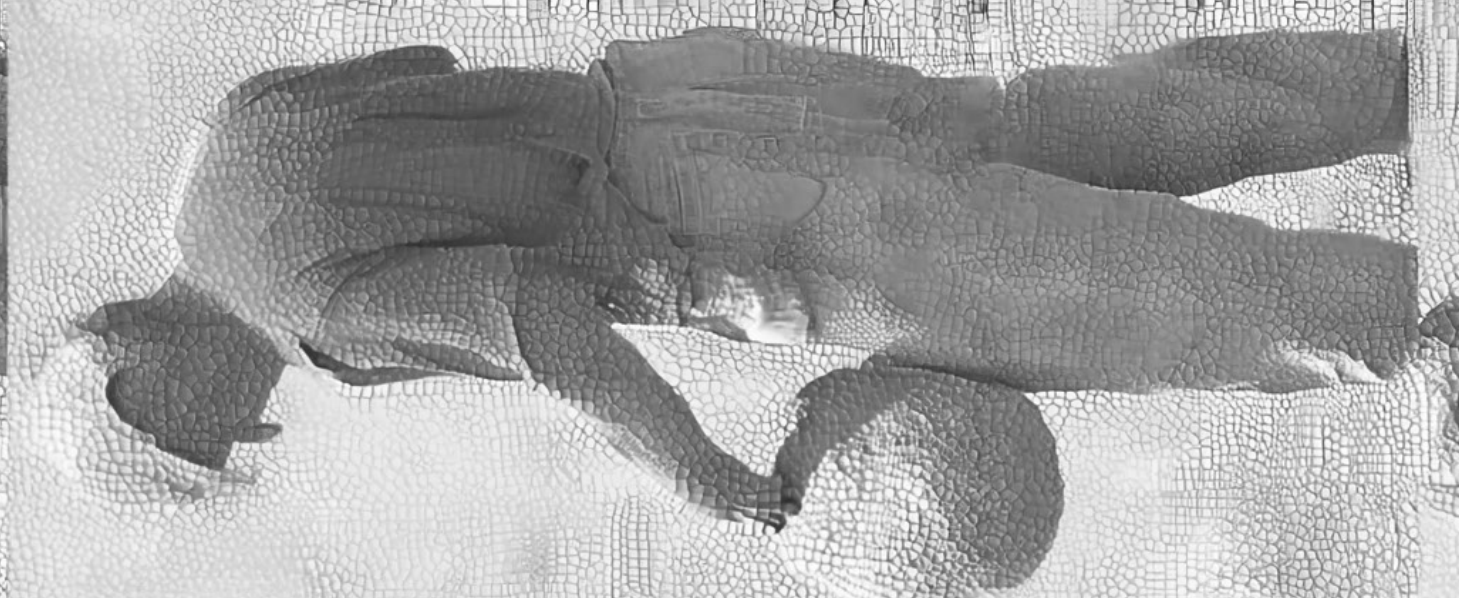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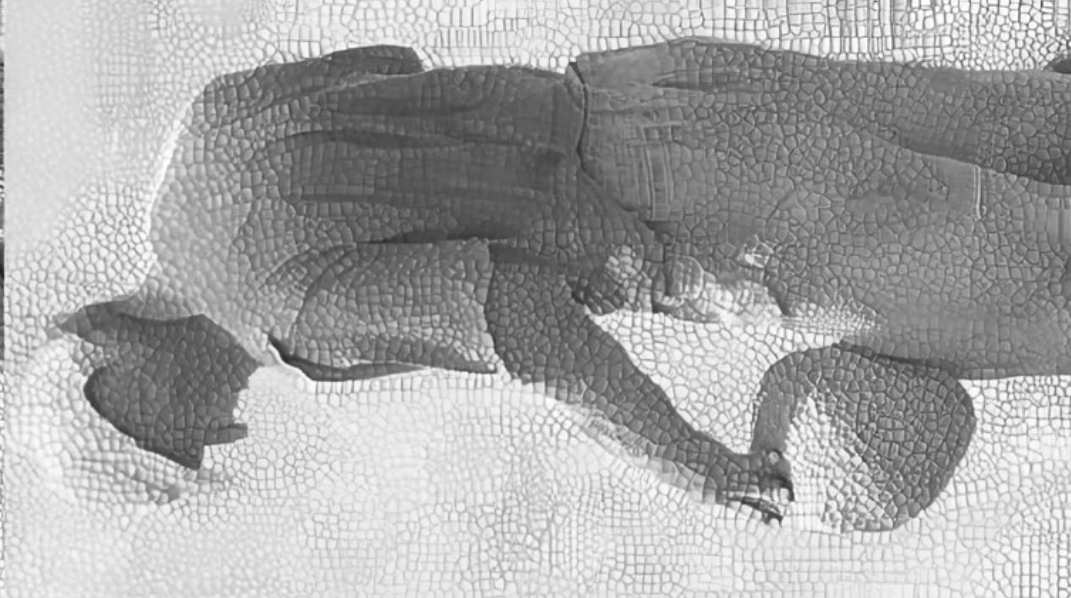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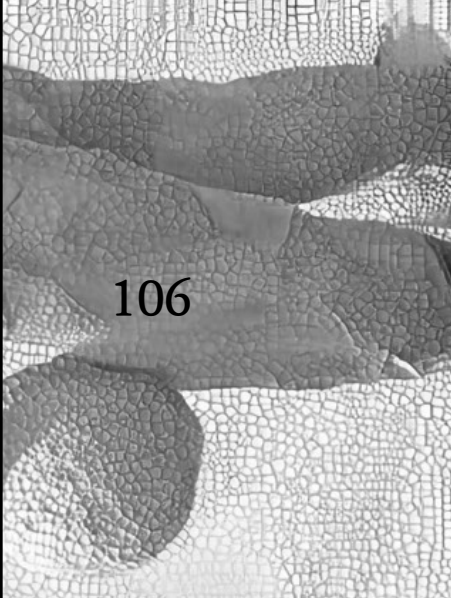




39. 굴리기보다 끌기



106



40. 끝기보다 기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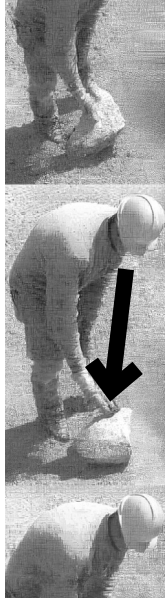
10,000g 돌을 가볍게 옮기기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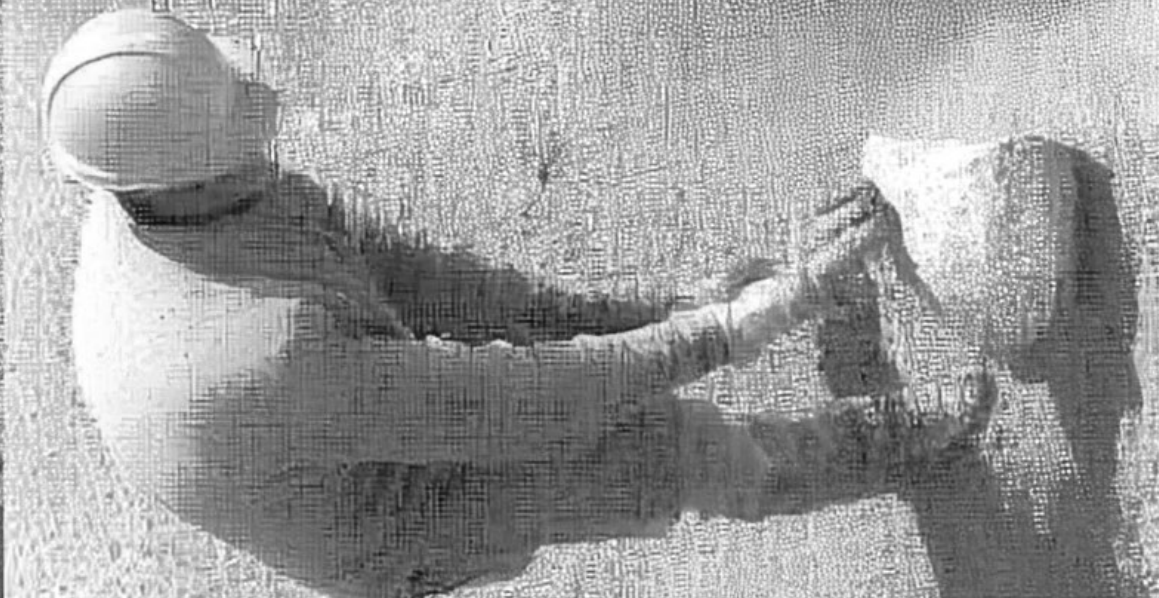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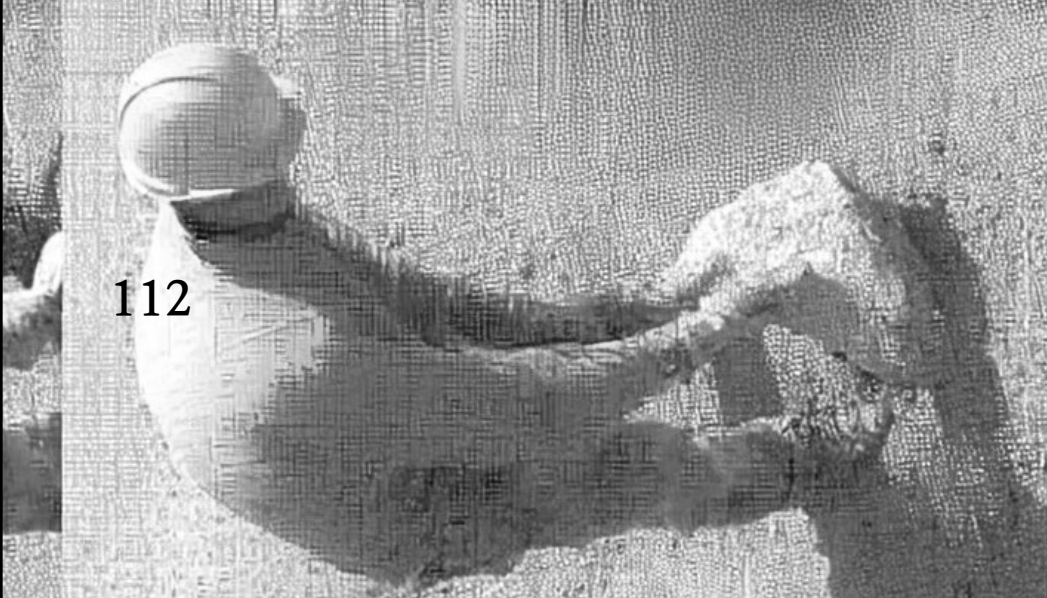
Moving a 10,000g stone *lightly*



41. 기대기보다 바라보기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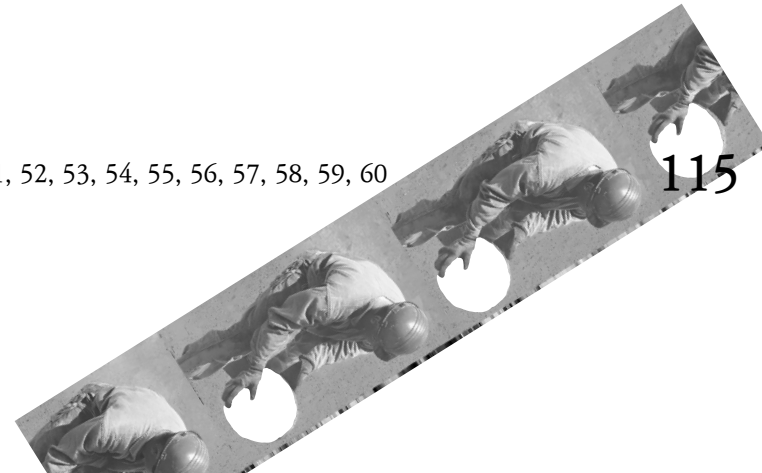
42. 돌을 속삭이듯 움직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43. 1분 동안 돌을 잇기





44. 1초 동안 돌을 포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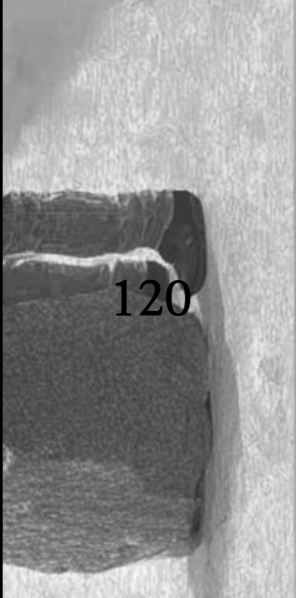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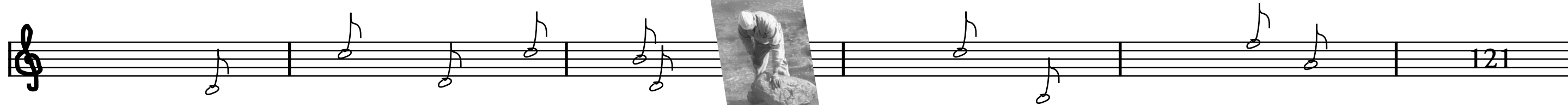
45. 돌과 나 사이에 천을 깔기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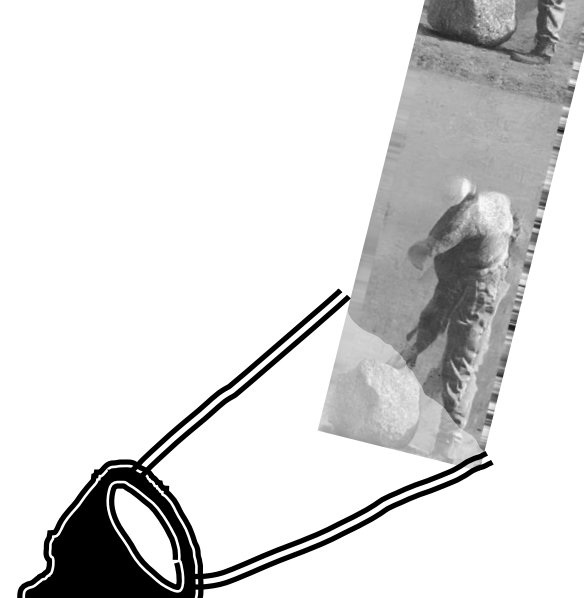




46. 돌과 나 사이에 음악을 두기



47. 돌에 불빛 비추기





48. 돌 위에 스티커 붙이기





49. 돌을 더러운 돌이 아니라 ‘내 돌’이라 부르기





2023. 12. 04. AM 09:41

50. 돌에게 장점을 만들어주기



- 돌의 장점
- 1. 가볍다 생각하면 가볍다.
 - 2. 무거워보여서 어른스럽다.
 - 3. 요란하지 않은 색이 차분해보인다.
 - 4.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 5. 모두에게 공평하다.
 - 6. 자주 나랑 만나준다.
 - 7. 둥글둥글 귀엽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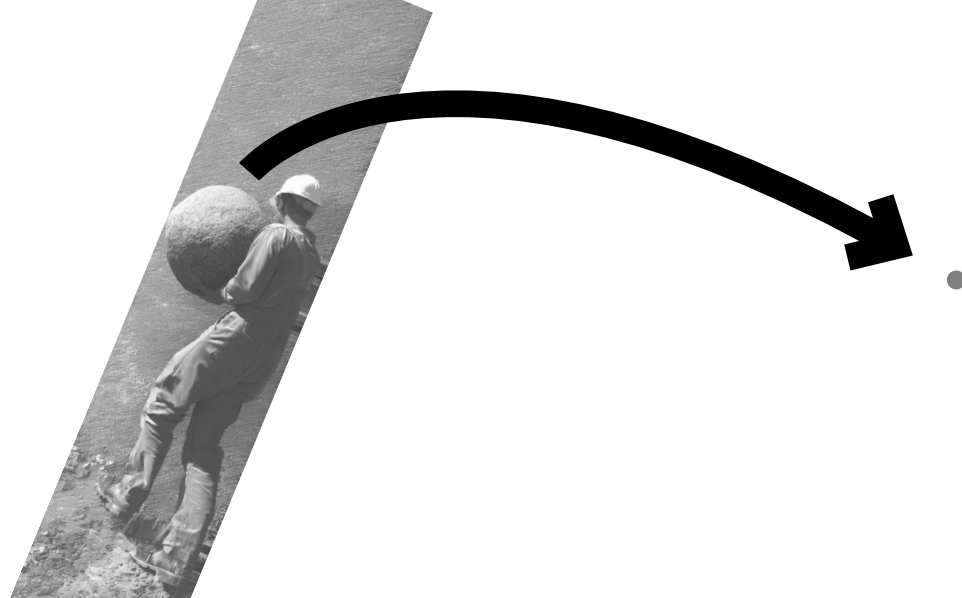


100,000g 돌을 가볍게 옮기기

132

Moving a 100,000g stone lightly

51. 돌을 미니어처로 축소해보기





손바닥 위에 올라왔을 때 무게가 먼저 감각으로 도착하는 물질이다. 표면은 단단하고, 내부는 치밀하게 채워져 있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질량을 품고 있다. 크기로는 설명되지 않는 밀도가 있으며, 그 밀도는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만 드러난다. 동일한 부피의 물과 비교했을 때,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무게를 남긴다. 이 물질은 형태보다 비중으로 인식되고, 부피보다 질량으로 기억된다.

52. 돌을 글로 묘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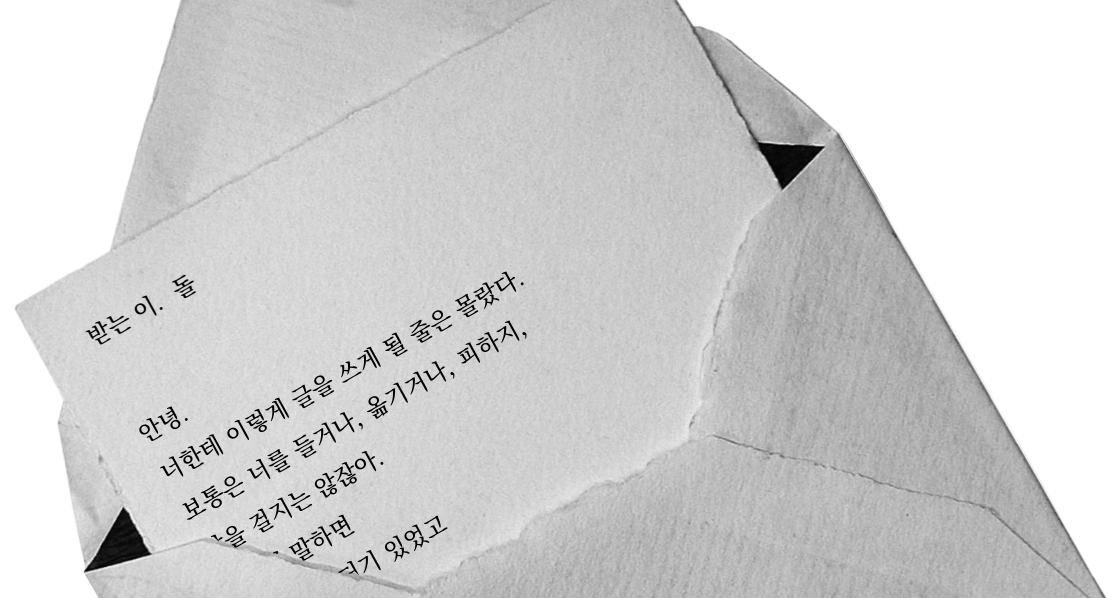
끼익,
 툅
 또각... 또각,
 툅.
 퐁,
 둔—

53. 돌을 소리로 묘사하기





54. 돌을 향해 짧은 편지 쓰기



받는 이. 돌

안녕.

너한테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보통은 너를 듣거나, 옮기거나, 피하지,

돌을 걸지는 않잖아.

말하면

있었고

140



55. 돌이 줄어든다고 상상하기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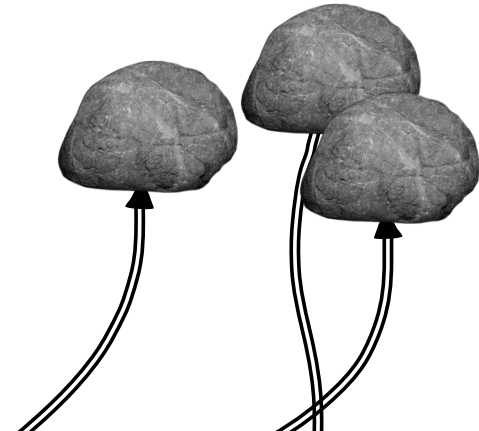


56. 돌이 가벼운 재질이라고 상상하기





57. 돌이 사실 풍선이라고 상상하기



146



10,000g 돌 현실적으로 보관 가능한 장소 후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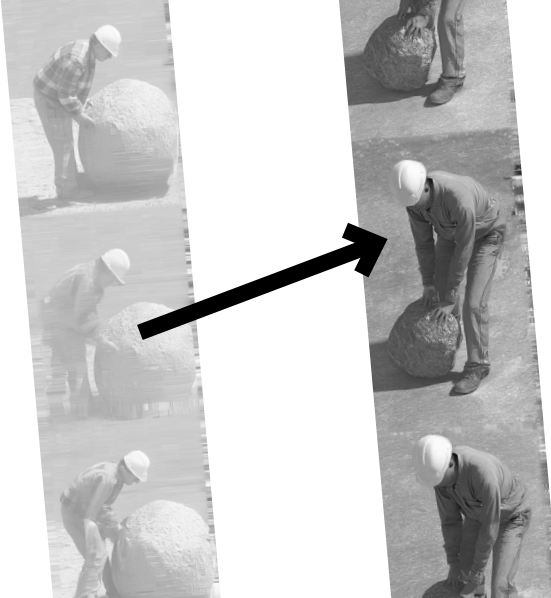
1. 콘크리트 바닥 위 팔레트 → 가장 안전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보관
2. 산업용 철제 랙(하단) → 작업실 표준, 하중이 명확함
3. 목재 크레이트(두꺼운 합판) → 이동·봉인·보관이 동시에 가능
4. 바닥에 테이프로 표시된 구역 → 물리적 보관 + 개념적 경계
5. 작업실 중앙 바닥 → 보관이면서 동시에 방해

58. 돌을 잠깐 다른 데 맡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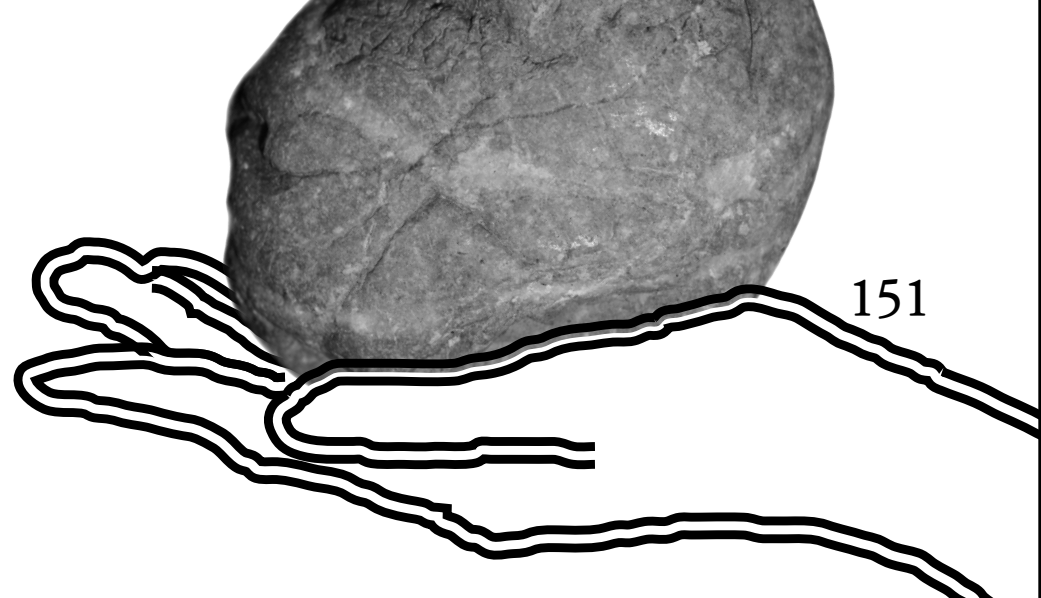


59. 돌을 밀던 자세 바꾸기





60. 돌에 손바닥 전체가 닿게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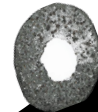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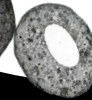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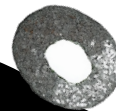




152



1



1,000,000g 돌을 가볍게 옮기기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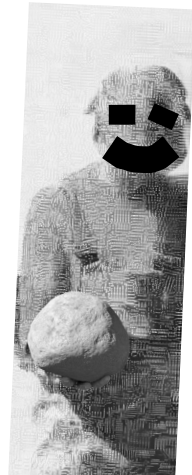
Moving a 1,000,000g stone lightly

61. 발 뒤꿈치를 조금만 들기





62. 조금만 웃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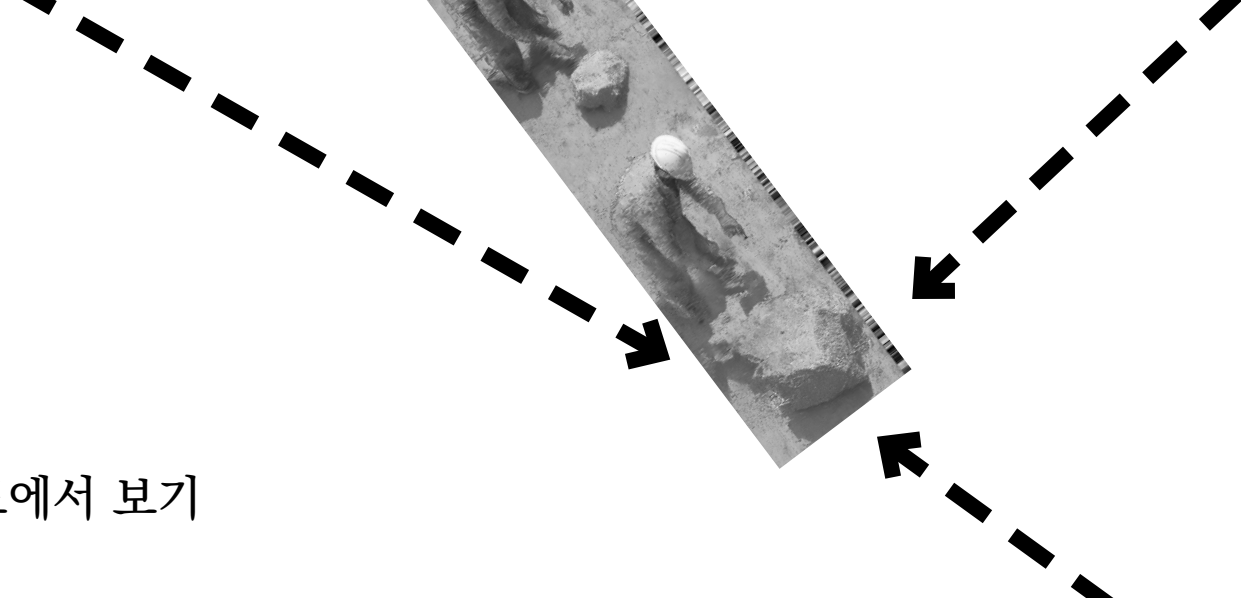


63. 돌 옆에서 스트레칭하기





64. 돌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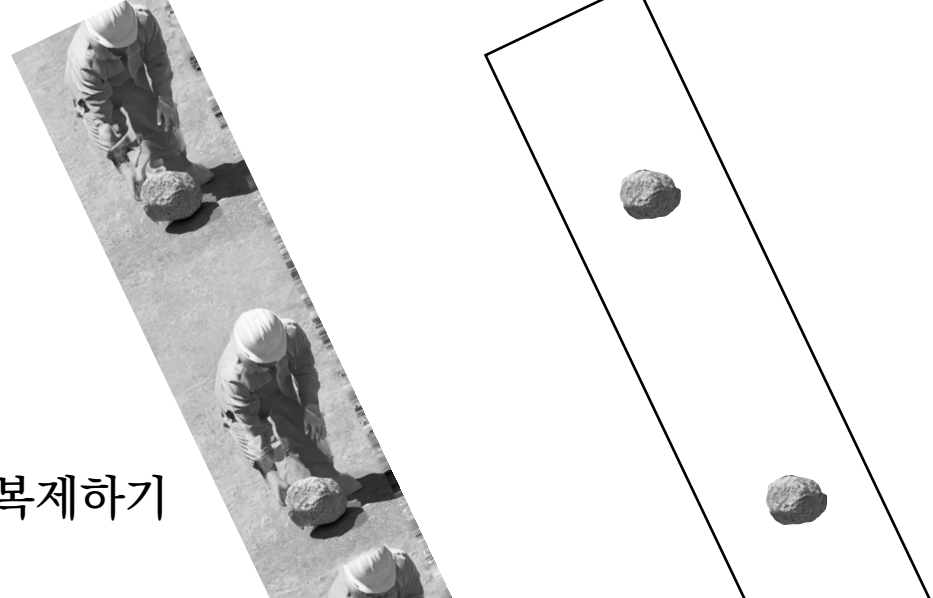


65. 돌을 거울로 비추기





66. 돌을 종이에 복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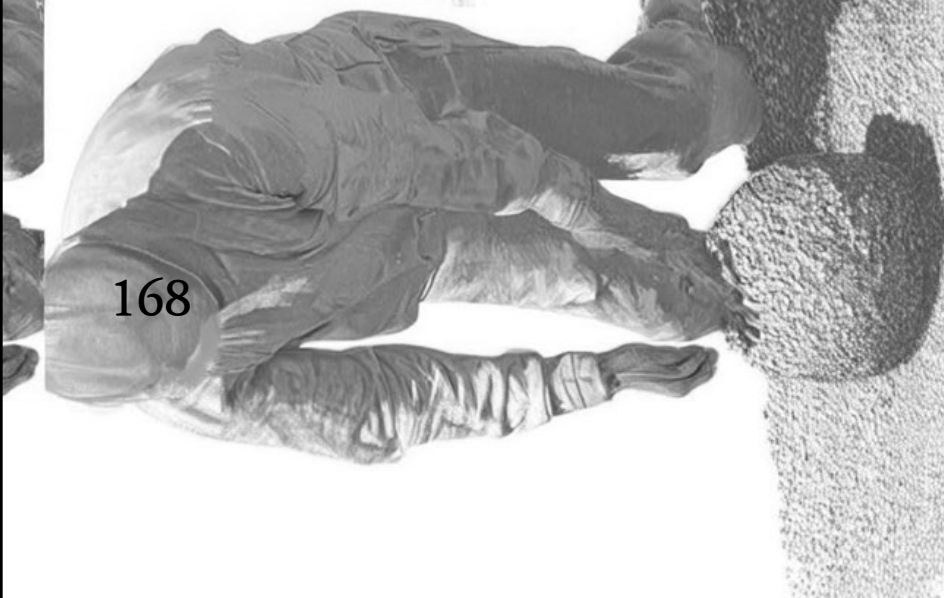


166

67. 돌의 그림자만 밀어보기



168



68. 돌의 외곽선만 그려보기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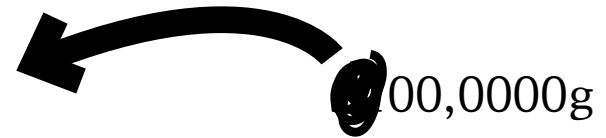


69. 돌의 무게를 허구로 바꾸기





70. 돌에서 1단어만 추출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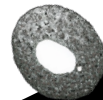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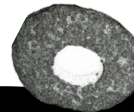


100,0000g



10,000,000g 돌을 가볍게 옮기기

176



Moving a 10,000,000g stone ligh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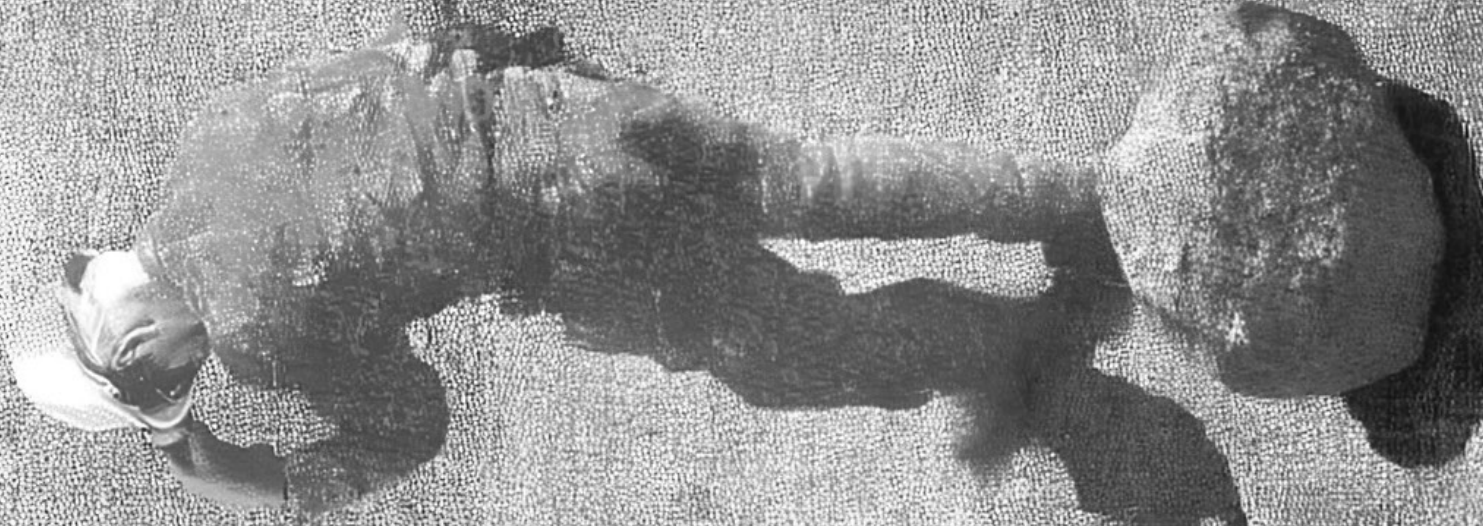
71. 돌에게 역할을 부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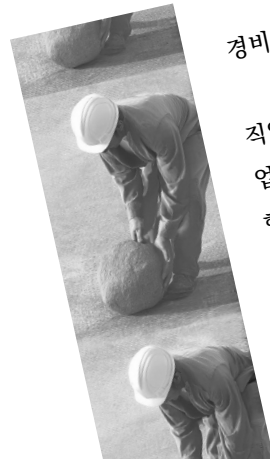
근손실 수비수

늘, 언제나 둔근, 대퇴사두근, 코어,
대흉근, 삼두근의 근육 손실을
수비하고 있다.

178



72. 돌에게 직업을 주기



경비원 '돌' 씨

직업: 경비원

업무: 자리를 지킴

행동: 움직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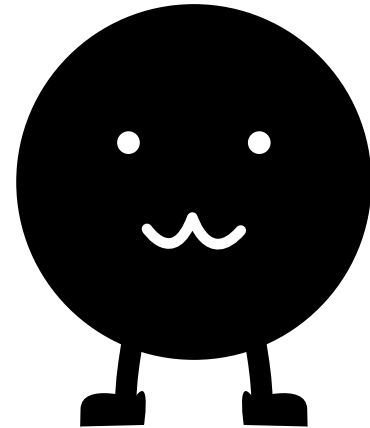
성과: 아무 일도 없음

근무 형태: 상시 대기

근무 시간: 24시간 (교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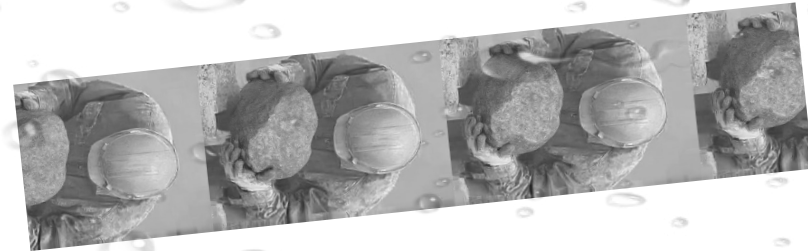


73. 돌을 캐릭터화하기





74. 돌을 물에 살짝 적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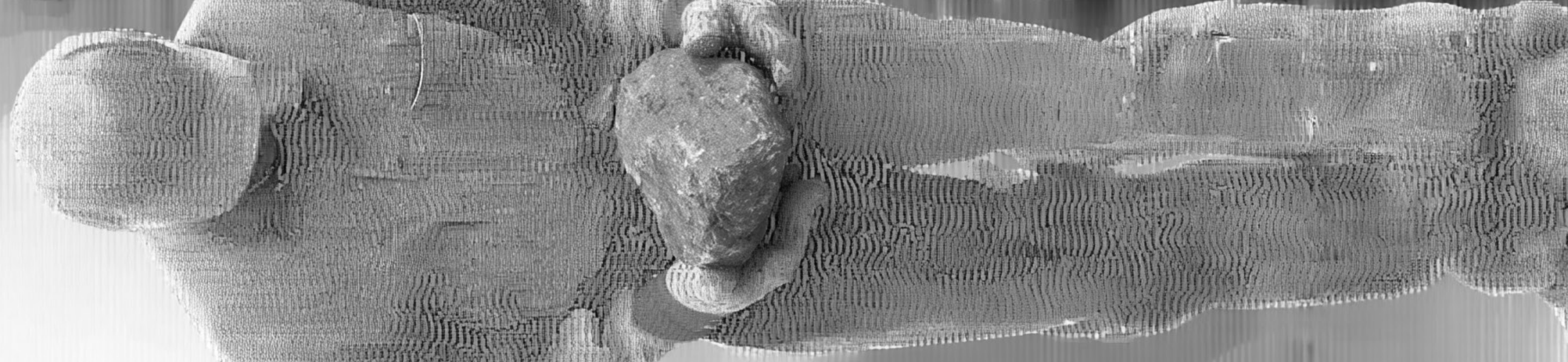


184



75. 돌을 천으로 감싸 부드럽게 만들기







76. 돌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기



2023. 12. 04. PM 00:57

77. 돌 뒤에 짧은 발자국을 남기기





78. 돌 앞에 목표점을 수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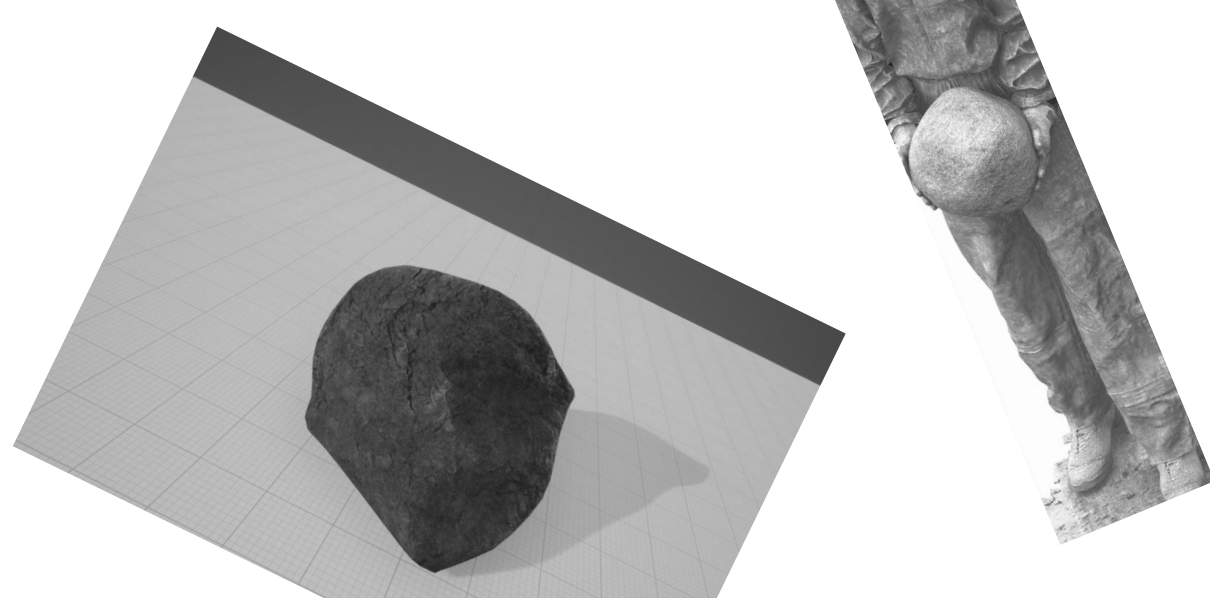
돌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돌 자체의 질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돌이 받아들이는 힘의 방향과 양을 바꾸는 데 있다. 반사판은 힘이나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되돌려 보냄으로써, 특정 지점에 집중되던 부담을 분산시키는 장치다. 돌을 반사판으로 사용할 경우, 돌은 더 이상 힘을 받아내는 대상이 아니라 힘을 되돌려 보내는 매개가 된다. 이때 돌에 가해지던 하중은 돌 내부에 축적되지 않고 외부로 반사되며, 결과적으로 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감소한다.

즉, 돌의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무게가 작용하는 방식은 바뀐다. 반사판으로 기능하는 순간, 돌은 짐이 아니라 경로가 되고, 하중은 머무르지 않고 통과한다. 이 전환을 통해 돌은 물리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중심에서 벗어남으로써 가벼워진다.

79. 돌을 반사판처럼 사용하기



80. 돌을 축소한 모형 만들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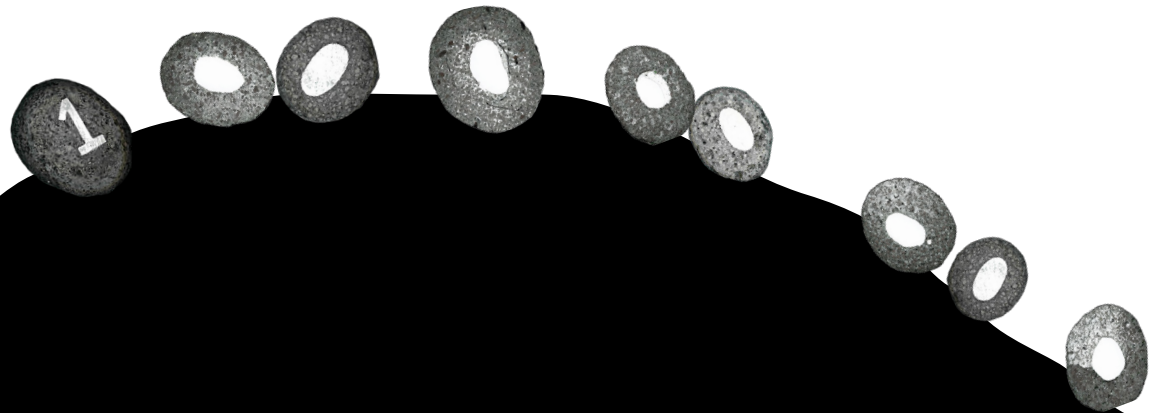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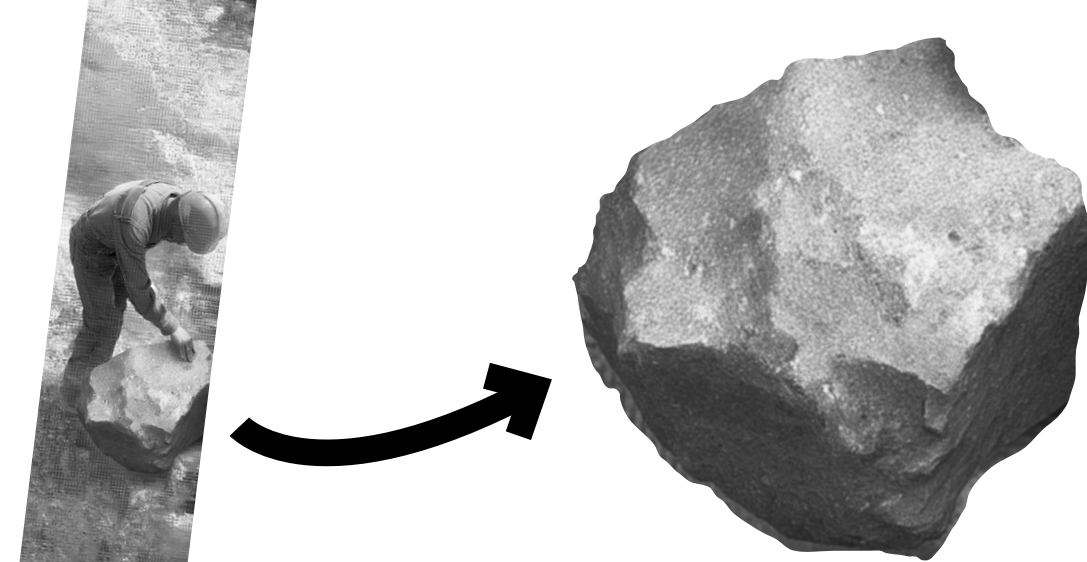
100,000,000g 돌을 가볍게 옮기기

198

Moving a 100,000,000g stone lightly



81. 돌을 확대해보기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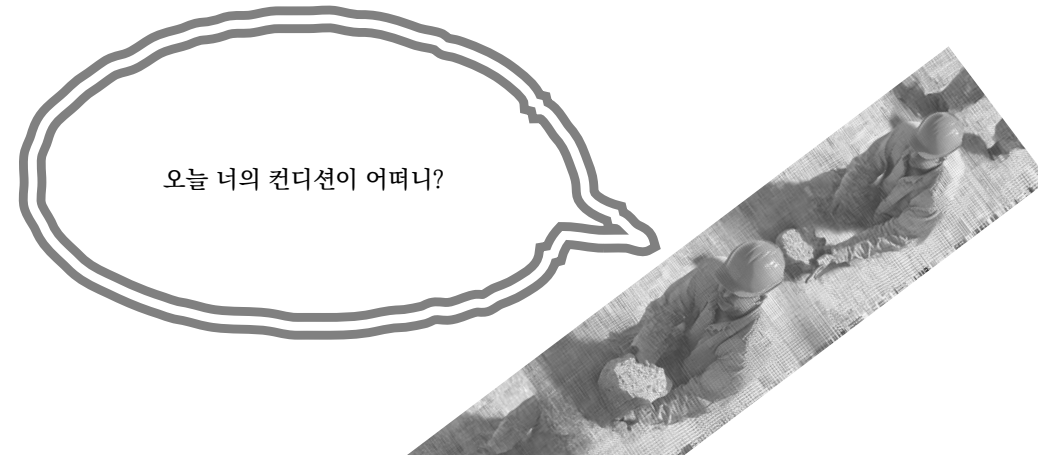
- 밀리그램 (mg): 1/1,000 그램 (0.001 g). → 100,000,000,000 mg (10^{11} mg)
- 마이크로그램 (μ g 또는 mcg): 1/1,000,000 그램 (10^6 g). → 100,000,000,000,000 μ g (10^{14} μ g)
- 나노그램 (ng): 1/1,000,000,000 그램 (10^9 g). → 100,000,000,000,000,000 ng (10^{17} ng)
- 피코그램 (pg): 1/1,000,000,000,000 그램 (10^{12} g). → 100,000,000,000,000,000,000 pg (10^{20} pg)
- 펨토그램 (fg): 1/1,000,000,000,000,000 그램 (10^{15} g). → 100,000,000,000,000,000,000,000 fg (10^{23} fg)



82. 돌의 ‘무게의 단위’를 바꾸기



83. 돌에게 오늘 컨디션 물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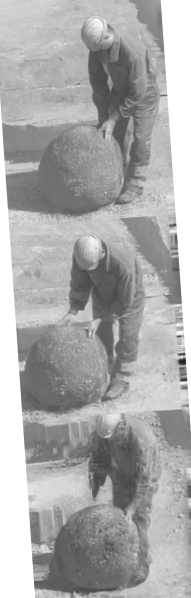


돌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원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돌을 만들지 않았고, 다만 발견했을 뿐이다.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돌은 오랫동안 배경으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 돌은 도구가 되었고, 잘린 돌만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이름을 얻은 돌과 달리, 잘리지 않은 돌은 계속해서 무명으로 남았다. 문자가 생기자 돌은 기억과 권력을 맡는 매체가 되었고, 새겨진 돌은 시간을 봉인했다.

산업화 이후 돌은 분해되어 단위가 되었고, 사용은 늘었지만 인식은 사라졌다. 최근에 와서야 돌은 다시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계속 거기에 있는지가 묻기 시작했다.

84. 돌의 역사를 지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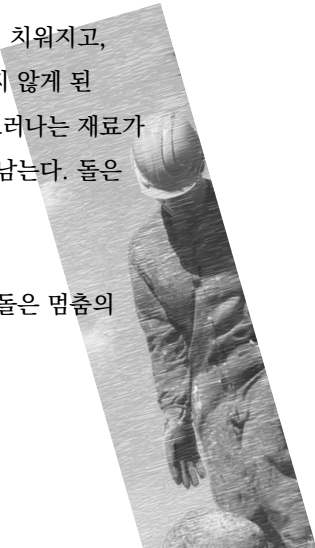
206



앞으로 돌은 더 이상 중심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기술은 가볍고 빠른 재료를 선호하고, 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신 돌은 점점 치워지고, 숨겨지고, 바닥 아래로 밀려난다. 도로 아래, 건물의 기초 속, 화면에 보이지 않는 층위로 내려간다. 그러나 돌은 사라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된 자리에서 돌은 여전히 무게를 맡는다. 눈에 띄지 않는 하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이 가능해지도록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 미래의 돌은 드러나는 재료가 아니라,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또 다른 방향에서 돌은 데이터로 치환된다. 질량은 숫자가 되고, 표면은 스캔되어 점군으로 남는다. 돌은 더 이상 만져지지 않아도 저장될 수 있고, 이동하지 않아도 복제된다. 이때 돌은 물질이 아니라 참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의 가장 오래된 역할은 유지된다. 미래에도 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속도가 가속될수록, 돌은 멈춤의 기준으로 남는다. 모든 것이 업데이트되는 세계에서, 돌은 업데이트되지 않는 존재로 기능한다.

85. 돌의 미래를 상상하기





굵혔다

밀도가 높다



까슬까슬하다

차갑다

거칠다

단단하다

둔하다

서늘하다

무거..가볍다

뽳뽳하다

무광이다

메말랐다

86. 돌의 질감을 단어로 치환하기

210





87. 돌의 무게를 명도로 표현하기





88. 돌의 속도를 상상하기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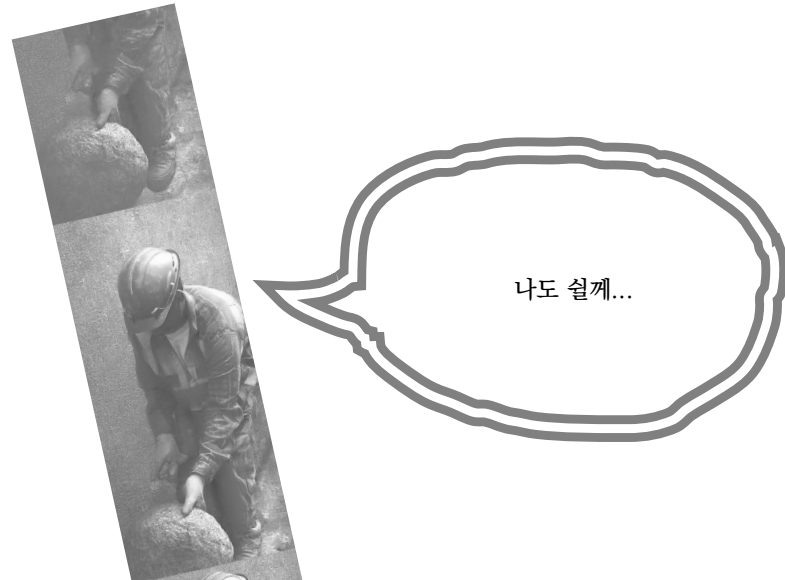


89. 돌에게 휴식시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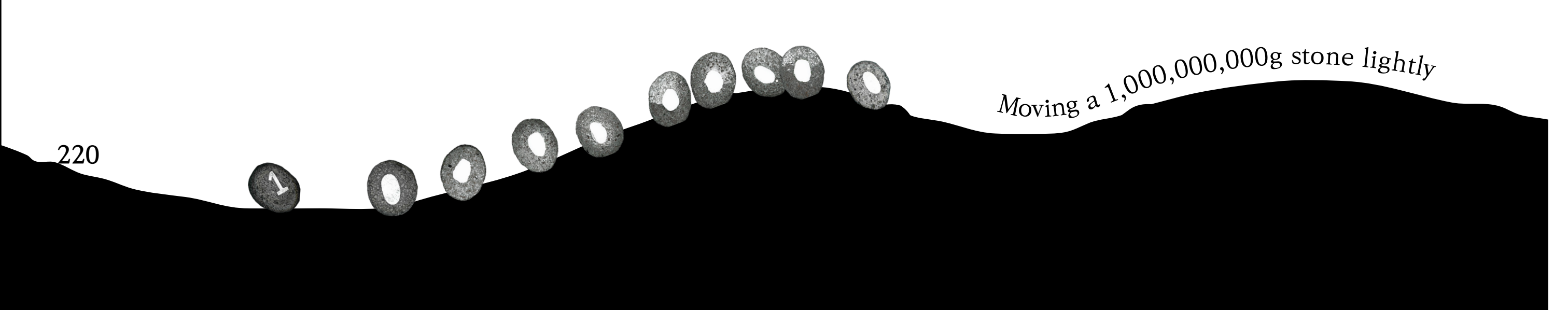
90. 나에게 휴식시간 주기



218



1,000,000,000gg 돌을 가볍게 옮기기



220

1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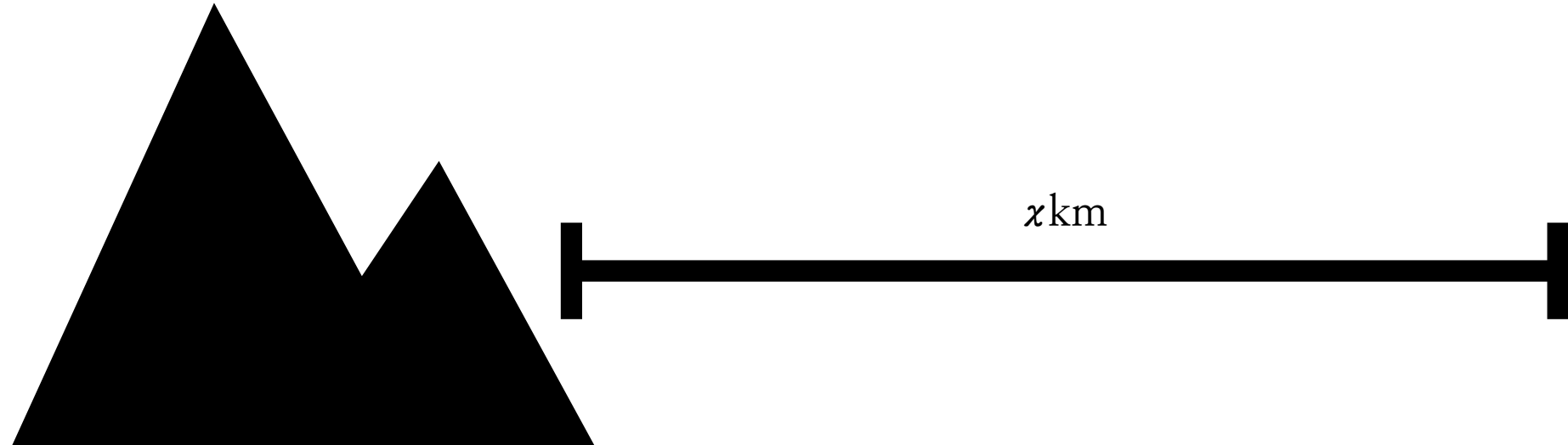
0

0

0

Moving a 1,000,000,000g stone ligh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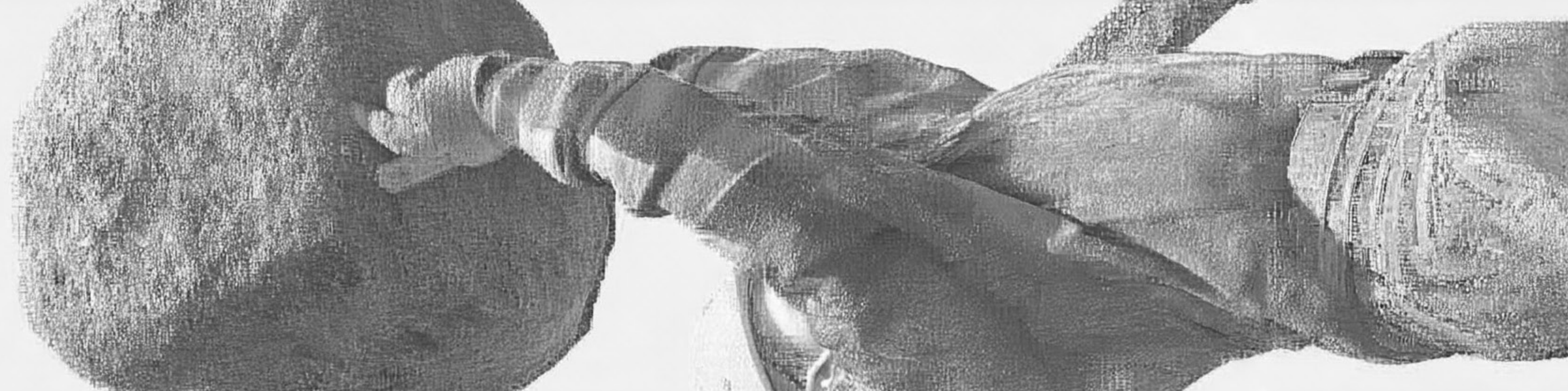
91. 돌과 산의 거리 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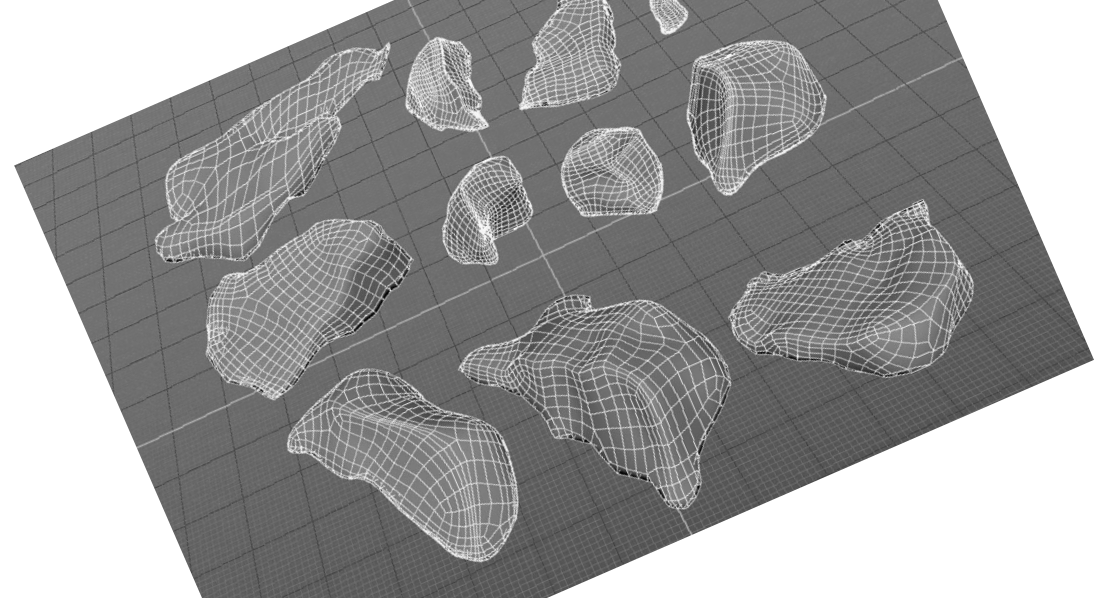


92. 돌을 밀던 발자국 기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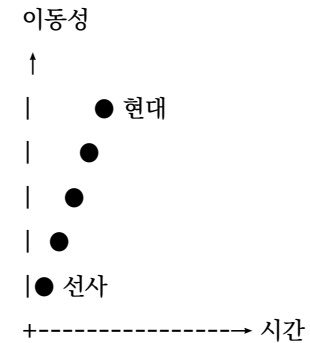


93. 돌을 3D로 스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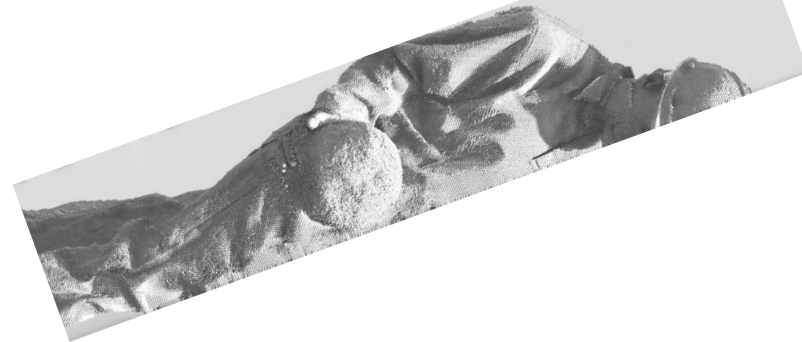




2023. 12. 07. PM 0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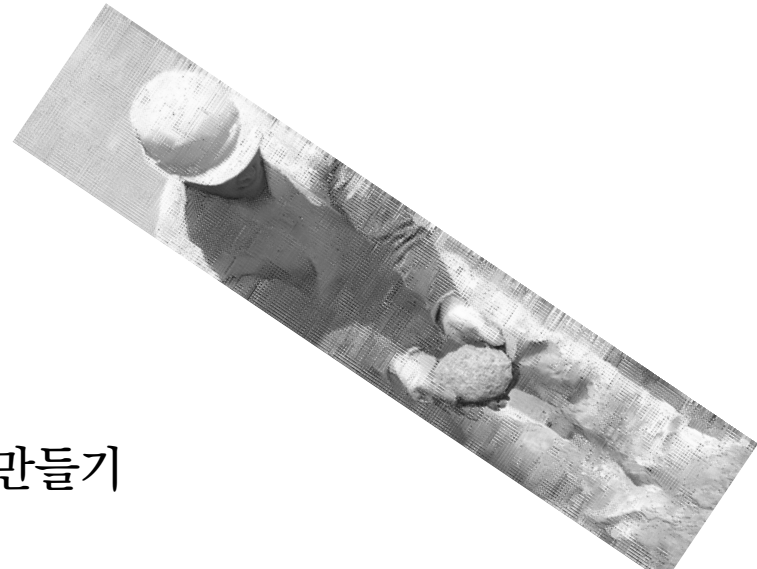


94. 돌을 그래프화하기





95. 돌을 음표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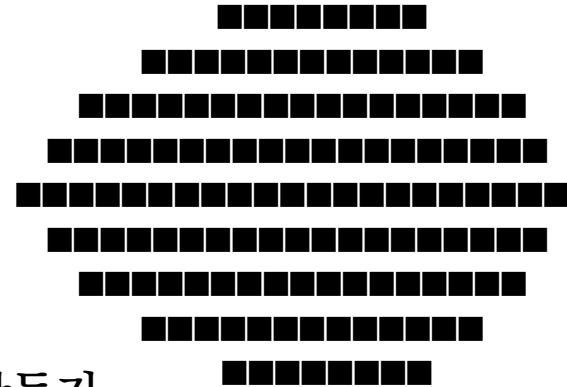
```
{  
  "type": "stone",  
  "mass_g": 100000,  
  "state": "static",  
  "mobility": 0,  
  "updated": false  
}
```

96. 돌을 데이터로 만들기





97. 돌을 픽셀로 만들기





98. 돌을 점 하나로 축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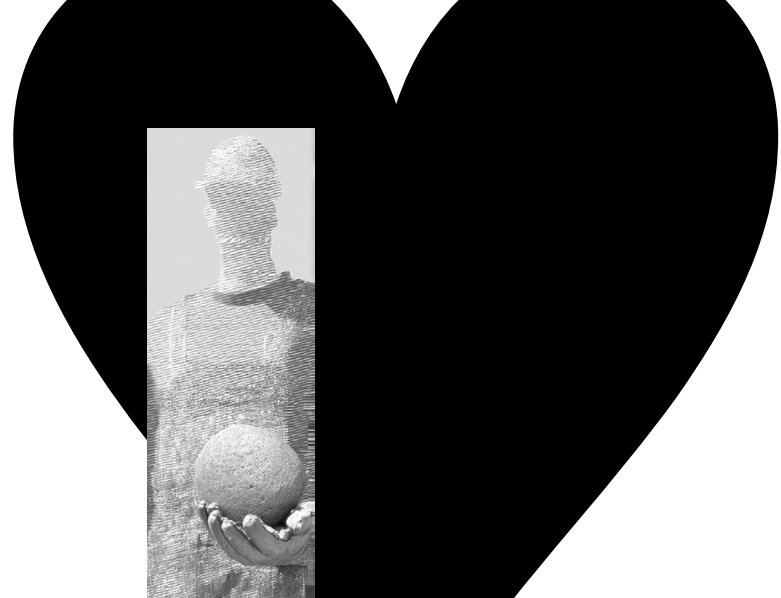
99. 돌을 잊어도 된다고 허락하기



돌? 사실 까먹어도 돼.



100. 돌을 사랑해보기, 아모르 파티처럼



240



초미세 돌덩이

발행일	기획 및 편집	디자인	인쇄/제작
2025.12.18	전아현	전아현	전아현

이 책은 알베르 카뮈의 글 「시지프 신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책입니다.
시각적 표현과 콘텐츠 구성은 수업 내 탐구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 창작물로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ultrafine stone particles

Publication Date	Planning & Editing	Design	Printing & Binding
2025.12.18	Jeon Ahyun	Jeon Ahyun	Jeon Ahyun

This book is a reconfiguration based on Albert Camus’s The Myth of Sisyphus.
The visual expressions and content presented here are original works developed through an individual creative inquiry conducted as part of a course.
Unauthorized reproduction or duplication of the texts and images included in this book is prohibited.

ultrafine stone particles

Jeon Ahyun